

2012 은평구립도서관 군장병 독후감상문 공모전

독후감상문 모음집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은평구립도서관

겉표지 내측

간지

간지내측

속표지(겉표지 디자인 동일)

속표지(내측)

발 간 사

2012년도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우리 도서관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문화재단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은평구립도서관이 주관하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매년 선정 도서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한 지난 시간은 은평구립도서관에 있어서 매우 뜻 깊은 추억입니다. 특히, 올해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은 병영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방패부대 장병들과 함께하여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립도서관과 수도방위사령부 방패부대와 함께 실시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을 기념하여 장병들의 글을 모아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병들이 도서관과 함께 좋은 책을 매개로 하여 의미 있는 군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 남은 군 복무 기간을 무사히 마치길 기원하며 이 책자가 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은평구립도서관장

염 무 성

2012. 12

은평구립도서관장 **염 무 성**

<심사 위원 소개>

▣ 수필가 맹난자

약 력

《에세이문학》 발행인
한국수필문학진흥회장을 역임
현 《월간문학》, 지하철 《풍경소리》 편집위원
현대수필문학상, 남촌문학상, 정경문학상 수상

저 서

『그들 앞에 서면 내 영혼에 불이 켜진다(2012)』
『만목의 가을(2010)』
『라데팡스의 불빛(2007)』
『인생은 아름다워라(2004)』
『삶은 원하거든 죽음을 기억하라(2002)』
『사유의 뜰(2001)』

〈시상식 풍경〉



- 목 차 -

선정도서 소개 _ 12

독후감상문 수상작 모음 _ 13

독후감상문 모음 _ 54

<선정도서 소개>



주인공이자 작가인 오명씨의 '이야기교실'에 등장하는 건널목씨 이야기를 통해 힘든 현실에서도 조건 없이 남을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제시하고 있다.

2012 책읽는서울
한도어만 한책읽기

어린이 선정도서

청소년/성인 선정도서

주제 : 나, 너 그리고 우리

나에 대한 존중, 너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더불어 나는 우리

나에 대한 존중.
나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갖고 나의 부족함에도 운을 수 있는 여유로 스스로를 존중합니다.

너에 대한 이해.
남대방에 대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갑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는 우리.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살지만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주최 서울문화재단
주최 서울특별시교육청
후원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은평구립도서관 | 중산정보도서관 | 상림마을작은도서관

대 상

**“얼어붙은 마음의 새싹을 피어라!”
(그 사람을 본적이 있나요?를 읽고 나서...)**

권성호 (방패교육대 본부중대 병장)

이 책 겉표지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얇은 거 아니야?”, “유치해 보이는데?” 다소 거리감 있게 느껴졌다. 추리, 공상과학, 전쟁, 처세술, 스릴러 등 흥미위주의 독서편식을 해온 나에게 색안경을 끼고 이 책을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으나 ‘책은 겉표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라는 격언처럼 나는 역으로 방통을 저버린 조조가 되지 말고 사람의 속내와 인격을 봤던 유비처럼 나도 작고 이 얇은 책에 속내를 한번 파보기로 했다. 보기와 다르게 이 책은 읽은 후 나는 혼자 속으로 울게 되었고 감정이 메말랐던 나에게 생활관 나의 베개를 축축하게 적시게 해준 유일한 책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은 이름만큼 명랑하고 속마음이 깊은 오명랑이라는 동화작가가 이야기 듣기 교실을 만들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아프지만 추억으로 남은 건널목 아저씨 이야기를 3명의 아이들에게(종원, 소원, 나경이)말해주며 지나갔던 추억과 뜻함을 전해주는 아름답고 잔잔한 소설이다.

이 책에 빠지게 된 요소 중 하나는 각각의 특색 있는 등장

인물이다. 예전의 아픔을 딛고 아이들을 위해 스스로 건널목 아저씨가 된 한 남자, 이야기의 진행자이자 이야기 속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낸 태희, 투덜투덜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종원, 때 묻지 않은 아름다움을 가진 소원, 똑부러 지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똑똑한 아이 나경, 그리고 이 아픈 추억이야기를 멀리서 듣고 계시는 엄마, 항상 활기차지만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새언니 도희, 태희의 오빠이자 도희의 남편 그리고 유년 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태희를 잘 보살핀 속 깊은 아이 태석 등에서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등장인물들과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추억을 통해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향수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어 현대의 각박한 현실 속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나의 마음에 양식이 되어 한 송이에 작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해주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다채로운 등장인물들의 등장으로 책장을 한 장씩 넘길 때 마다 인물이 점점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아 종원이가 내 동생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소원이 같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명랑이라는 작가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다니....’ 등 내 자신이 각 인물들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등장인물들에 감정이입하게 되어 작가가 웃으면 웃고 슬픔을 느끼면 같이 울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이 책은 야밤에 눈물 없는 나에게 베개를 적시게 해준 책이니까 말이다.

구조도 흥미로웠다. 이야기 속에 이야기라는 상황으로 고등학교 때 주입식 교육으로 받았던 액자식 구조를 이 책을 통해 처음 보았다. 이야기듣기교실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고 나아가 그 아픔을 말하면서 가족들 간에 암묵적이었던 어두웠던 과거를 3명의 맑고 깨끗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해소하는 과정이 다소 지루 할 수 있었던 이야기 전개를 가볍지 않고 또한 지루하지 않게 하였

다.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와의 긴 텀 속에서 인물들의 변화를 상상 할 수 있어 이 또한 묘한 재미가 있다.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오명랑 작가의 솔직한 속마음을 독자가 알 수 있게 해서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 할 수 있었고 종원이와의 아기자기한 양속관계 오명랑의 속마음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작은 웃음을 선사해 주었다. 또 오명랑이 처음부터 건널목 아저씨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이라 밝히지 않지만 작은 복선이 깔려 있어 이야기를 통하여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태희의 가족 즉 오명랑의 가족이라는 작은 반전에 이야기의 인물들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재미도 흥미위주로 읽던 나도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책은 재미가 있어야 읽고 더 나아가 작가 자신의 생각을 재미있게 풀어가야 다른 이에게 전달할 수 있다 생각한다. 이 책은 작지만 많은 아기자기한 작가의 재미요소가 깔려져 있다.

건널목 아저씨라는 인물을 통해서 작가는 많은 이야기를 전개한다. 건널목 아저씨 이 인물을 통해서 오명랑이라는 작가는 아저씨와의 추억을 3명의 아이들에게 들려준다. 건널목 아저씨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딛고 커다란 도로카펫을 들고 다니며 거리의 신호등이 된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못 받은 도희와 어렸을 때 어려웠던 오명랑(태희)를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또한 보살펴주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오명랑은 이 3명의 아이들에게 들려줘 건널목 아저씨가 원했는지도 모를 아저씨의 사랑을 전달하게 된다.

책 속에 담겨져 있는 따뜻함은 나에게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화롯불이 되었다. 실제로 있을법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진실 되게 다가오게 되었다. ‘평생 모은 5억원을 사회에 환원하신 떡볶이 아주머니’, ‘술에 취한 취객을 열차에서 구한 한 사나이’등 할리우드엔 슈퍼히어로가 아닌 우리의 사

회에 있는 영웅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책은 이기주의와 무한경쟁 속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나의 마음에 작은 새싹을 피게 해준 보슬비 같은 역할을 하였다.

책은 나에게 많은 역할을 해준다. 이 책은 나에게 잊었던 사람들 간에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 작지만 큰 사랑이 담긴 책을 지인에게 권해주고 싶다. ‘그 사람을 알고 있나요’라는 책 제목처럼 나의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그 사람 즉 건널목 아저씨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옛 추억을 생각하며 건널목 아저씨가 남긴 사랑이 서로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우수상

자기치유와 추억의 갈무리, 자기반성의 기회

강희준 (방패교육대 본부중대 일병)

김려령 작가의 장편소설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는 무겁지 않은 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교훈마저 가벼울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작가는 자칫 어둡게 다루어질 수 있는 주제, 소외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결 밝고 가벼운 분위기로 풀어낸 것이지, 주제 자체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서둘러 읽다보면 작품의 밝고 유쾌한 분위기로 인해 쉽사리 보지 못할 무겁고 가슴 아픈 질문이 작품 전체를 포괄하며 흐르고 있음을 유념하도록 하자. 언뜻 보기엔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 작품의 마지막 질문이, 글을 읽는 우리들을 겨냥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표면적인 의미 이상의 것으로 질문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우리들에게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키며 반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책을 모두 읽고서 마지막 책장을 덮는 순간, 그 기회는 하나의 추궁으로써 우리들의 가슴 속을 파헤치며 심문할 것이다. 그 과정이 쓰라린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도록 하자. 비록 이 책이 현대인의 무심함을 고발하며 독자가 가슴을 움켜주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

는 감동적인 동화를 들려주는 것을 본래 목적으로 삼고 있더라도 말이다. 과연 지금껏 우리가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의 건넌목이 되어본 적이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는 자세만으로도, 우리의 무심함에 대한 충분한 자기반성이 될 수 있을까 ..
.....

2

작품 내 화자인 오명랑 작가는 필명 그대로 명랑하고 천진난만한 성격이다. 그는 칠 년 전 동화작가로 등단하였지만, 그 뒤 이렇다 할 작품을 못 내면서 무명작가로 가족들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형편인지라, 그에게 가족들이 잔소리를 해도 그는 별다른 반박조차 하지 못한다. 그런 화자의 처지를 작가는 유쾌한 언어로 그려낸다.

“내가 뭐 유명한 사람이나 되려고 글을 썼나? 진정한 작가는 원래 고독한 법이야.”

그럴 때마다 내게 잔소리하는 재미로 사는 새언니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나, 오 작가! 별것도 아닌 고독으로 웬 해괴한 사치를 다 부리셔?”

해괴한 사치라니. 끄……. (9면)

새언니의 말에 아무 말 못하고 속을 앓곤 하는 화자의 모습이 독자를 절로 웃음 짓게 만든다. 구태의연한 수식어 없이 짧은 문장 몇 개만으로 독자를 웃음 짓게 만드는 유머 감각이 서려있다.

흔히들 작가는 배고프다고 한다. 배고파서 일은 해야겠지만, 글도 같이 쓰고 싶은 작가의 어려움이 솔직담백한 어조로 쉽게 풀어져 독자의 가슴 속에 쉽게 와 닿는다.

어찌됐든 자신의 처지가 민망하지만 글은 계속해서 쓰고 싶은 오 작가는, 이야기 듣기교실이라는 과외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잘 듣기 교육을 시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한다.

“말이 많은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분명 다르니까!”라고 ‘이야기 듣기 교실’에 대해 말은

폼 나게 했다. 하지만 정작 내 속마음은 이랬다.

‘책을 읽기 싫어하면 들려주지 뭐. 책을 꼭 읽어야만 하나? 귀로 들으면 안 되나? 내가 들려주겠어.’ (10면)

무작정 큰소리치면서 광고지까지 붙이고 나니 학부모들의 문의전화가 걸려온다. 그러자 문득 화자는 이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조차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고민한다. 그러다 떠오른 화자의 생각이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이야기였다. 독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짓 없이 순수한 작가의 진솔한 이야기…….

나는 그동안 독자들에게 마음을 연 작가였던가……. 내 가슴에 깊이 박힌 이야기는 퐁퐁 숨겨 두고, 머리를 쥐어짠 이야기를 내놓으며 말로만 떠들지는 않았을까. (13면)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화자는 그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이제 꺼내려 한다. 이는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담아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화자의 작가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자 한 개인의 각성 과정이다. 자신의 누추한 과거를 부러꺼냄으로써 스스로에게 정당해지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자기치유의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서로에게 무신경한 현대 사회에서 따스한 인간애를 갖고 모두에게 헌신했던

개인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자 하는 화자의 노력이 담긴 행위이기도 하다. 더불어, 이야기의 결말을 예고하는 초반부의 복선이기도 하다.

부끄럽고 누추해서 숨기고 싶지만,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준 아저씨마저 숨기면 안 되지 않나……. 나는 아직 아이들에게 아저씨만큼 따뜻한 사랑을 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아저씨의 마음만큼은 잘 전달할 자신은 있다. 나는 이야기 작가니까. (14면)

독자들과 같이 이야기 교실에 함께 참석한 아이들은 총 세 명이다. 다소 투명스럽고 성격이 급하며, 기계처럼 단어나 외워야 하는 영어 교실보단 차라리 이야기 교실이 더 낫다는 오학년 종원이와 빨간 귀 토끼 이야기를 좋아하는 소원이, 그리고 동화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나경이. 독자는 아직 사회에 물들지도 상처입지도 않은, 이 순수하고 귀여운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오 작가의 ‘그리운 건널목 씨’ 이야기에 빠져들게 된다.

3

소설은 총 8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중에서 동화 ‘그리운 건널목 씨’는 둘째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둘째 장인 ‘첫 이야기, 그리운 건널목 씨’는 동화의 시작부분으로, 카펫 건널목을 들고 다니며 아이들과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 건널목과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건널목 씨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으며 셋째 장인 ‘아주 작은 집’에서는 건널목 씨가 불량한 아이들로부터 쌍둥이 형제를 구해주고, 아파트 주민들의 도움으로 경비실에서 지내게 되는 과정을 그려냈다. 넷째 장 ‘따뜻한 에너지를 뿜는 사람’과 다섯째 장 ‘경비실로 숨은 아이’에

서는 각각 부모의 불화로 외로움을 느끼던 도희에 대한 이야기와 도희를 보듬어 주는 건널목 씨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여섯째 장 ‘진짜 건널목이 생겼다!’는 아리랑아파트 후문에 건널목이 세워진 이야기를 짧게 그려내고, 동화에서 벗어나 화자와 아이들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룬다. 이야기의 후반부를 이루는 일곱 번째 장과 여덟 번째 장, ‘고소한 쌀 과자 냄새’와 ‘너무 늦은 말’은 부모님 없이 지하실에서 오빠와 둘이서만 지내는 태석이, 태희 남매의 이야기와 이를 보살펴 주는 도희와 건널목 씨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성 방식은 초반에는 느릿하게 전개되다가 중반부에 이르러 고조되고 후반부에 이르러 절정을 맞이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각각의 이야기들은 주제와 목적에 부합되는 곳에 위치하여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작품 속 화자와 그의 가족들이 동화 속 등장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은 이야기의 초반부에서는 일정 부분 숨겨져 있다가 중반부에 이르러 그 사실이 대부분 밖으로 드러나는데, 이 장치가 의도적인 반전이라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다소 일찍 드러나는 감이 있다. 작품의 중후반부에 이르면 화자와 가족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소설적 장치가 반전의 목적을 갖고 삽입된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야기의 초반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들이 중반부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와 비슷하게 건널목 씨 개인에 대한 묘사도 처음부터 나타나기보단 동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갈 때쯤에 나타나는 데, 이는 이야기의 배치 방식을 보다 다채롭게 바꾸어 서술 구조의 단조로움을 탈피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묘사는 넷째

이야기, 따뜻한 에너지를 뿜는 사람에서 짙막하게 나온다. 다소 독특하다 할 수 있는 건널목 씨의 행동이,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은 그가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마음에서부터 나왔다는 설정은 이야기에 구체성과 사실성을 덧붙인다.

건널목 씨와 도희, 태석이 태희 남매가 서로 마음을 나누는 과정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쌀 과자’나 ‘쥐포’ 등의 상징적인 물체를 활용하여 독자의 감성을 적절하게 자극하기도 한다. 남매가 어머니와 재회하는 과정에서는, 태희가 엄마에게 건네는 짧지만 많은 감정이 녹아있는 질문, “근데, 우리 왜 버린 거야?”라는 말을 통해 그 동안 남매가 겪은 고통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동화 속 이야기에만 치중하지도 않고 동화 밖 화자와 아이들, 가족들에 대한 서술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여 독자들에게 건널목 씨를 기리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과 행동에 사실성을 덧붙여 동화에 설득력을 더한다.

화자가 아이들에게 건널목 씨에 대한 동화를 들려준 가장 이유로는 건널목 씨를 기리는 것 외에도 자기치유의 목적도 있었다.

아이들이 나간 문을 닫고 한동안 서 있었다.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뒤에 어머니가 서 있었으니까.

*“두 해가 조금 넘었었나 보다. 그게 그렇게 안 잊히더냐?”
그제야 나는 돌아보았다.*

“죄송해요, 제 속에 그렇게 쌓였었어요. 이젠 됐어요.” (154면)

화자가 새언니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듯, 어린 시절의 화자는 가슴 속의 상처를 풀어내지 못하고 쌓아두고만

했다. 그 때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가슴 속에 응어리진 앙금이 되었고, 세월조차 낮게 하지 못한 상흔으로 자리 잡았다. 제 때 풀어내지 못하여 생긴 마음의 상처……, 우리는 그것을 한(恨)이라 부른다.

동화의 구전(口傳)은 그 한을 풀기 위한 방법이었다. 동화 속에서, 어린 시절의 고통은 건널목 씨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과 맞물려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된다. 그 과정 속에서 화자는 자신의 동화가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화자는 갈등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노인이 흘리는 눈물은 농이 짙은 눈물이다. 살아온 세월동안 물기는 날아가고 진액만 남아버린 눈물.(104면)

새언니를 피해 도망치다가 주방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고 말했다. 어머니의 어깨가 흔들렸다. 소맷자락으로 눈물도 닦았다. 새언니도 그 모습을 봤지만 못 본 척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운다. 그럼에도 해야 하는 이 이야기. 새언니도 어찌면 내마음을 알기에 허락한 게 아닐까. ‘엄마 미안해요…….’ (101면)

목울대가 울렁거렸고 쥐가 난 것처럼 손이 저렸다. 어머니에게는 새언니에게처럼 눈물 깔린 농담으로 허락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냥 덤덤한 척 나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야 했다.(111면)

그럼에도 화자가 아이들에게 동화를 계속해서 들려주었어야만 했던 이유는 어머니와 화자사이에 남아 있는 마지막 앙금을 해소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는 단순히 화자가 어머니에게 갖고 있던 유감스러운 감정을 풀어내는 과정을 넘어선 개인의

각성과과정이다. 자신의 발목을 움아매던, 과거라는 이름의 고통스러운 매듭을 풀어내는 행위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화자의 오빠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건널목 씨가 되어 버린 오빠. 오빠는 듬뿍들퍼 주지는 못해도, 어떤 아이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 줄 것이다. 나도 새언니도 그런 어른이 되고자 했다. 벼랑끝에 몰린 아이들에게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얼마나 든든하지 우린 잘 알고 자랐으니까. (155면)

글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우리는 화자의 오빠가 ‘또 다른 건널목 씨’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건널목 씨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본받기 위함은 아니다. 모두에게 감명을 주는 건널목 씨의 희생정신을 따르기 위한 방법으로는 불우이웃돕기나 기부와 같은 방법도 있다. 그런데 화자의 오빠가 많고 많은 방법 중에서 굳이 ‘또 다른 건널목 씨’가 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화자가 어린 시절에 입은 마음 속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화자의 오빠 역시도 화자와 같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화자의 오빠 역시 화자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상처를 안고 있을 텐데, 글 속에선 화자의 오빠가 갖고 있을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와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화자의 오빠는 이미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건널목 씨가 되는 것, 그것은 그가 아이들의 ‘안전장치’가 되는 길이자, 자신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앙금을 풀어내는 그 자신만의 방법이었다.

화자에게도 화자의 오빠에게도 마음 속 든든한 버팀목이 되

어준 사람은 바로 건널목 씨였고, 남매가 어른이 된 이후에도 마음 속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만일 어린 남매의 곁에 건널목 씨가 없었더라면, 어린 시절의 고통은 그저 고통과 상처로만 남을 뿐, 애뜻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건널목 씨는 어디론가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난 뒤에도 남매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추억으로 갈무리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다. 특히 화자에게는, 화자와 어머니 사이를 잇는 건널목으로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5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의 제목이자 글의 맺음말인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위 질문에 대한 해석을 보다 교훈적인 의미로 확대시켜보자. 화자의 동화는 독자들이 사회에서 소외 받은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호소한다. 질문에서의 ‘그 사람’은 건널목 씨 한 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가짐으로 주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들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냐는 말에서, ‘보다’라는 단어의 대상을 타인만이 아닌 자신의 모습까지 확대시켜보자. 이 경우 위 질문은 단순히 건널목 씨와 같은 선인이나 건널목 씨가 행한 것과 같은 미담을 보고 겪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그러한 순수한 선의에 의한 선행을 해온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작품의 제목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의 추궁으로 변하는 순간, 질문은 엄청난 무게로 우리를 짓누른다. 우리는 스스로를 인간애와 양심의 법정위에 세워야 할 것이다. 평소 우리들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이 법정의 심판대 위를 피해 갈 수 없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다. 철없던 어린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소외받은 이웃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던져왔던 무관심한 시선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그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칼날과 같은 무관심을, 우리는 어떠한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함부로 던지지 않았던가? 그들을 사회의 구석으로 몰아놓은 것은 우리들 자신이면서, 심지어 그들을 사회의 낭떠러지로 밀어 넣었으면서도, 너무나도 뻔뻔스럽게도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경멸’의 시선을 보내진 않았는가?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도라도 했던가? 동화 속에서 나오는 소외받은 어린이들은 우리가 경멸하던 소외된 이웃들 중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굳이 어린이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날 서린 경멸의 시선으로 그들 모두를 내리깔아보지 않았는가? 심지어 그러한 시선을 당연시한 적도 있지 않은가? 길거리에서 박스를 이불삼아 잠을 청하는 노숙자들에게 일 할 생각이 없는 게으른 자들이라 손가락질하진 않았던가? 시장거리에서 돛자리 위에 먹을거리들을 깔아놓고 행인들에게 맛만이라도 보고 가라며 내미는 할머니들의 손을 뿌리치진 않았던가? 지하철에서 옛 노래를 틀어놓고 찌그러진 깡통을 들고 객실을 돌아다니는 불우들을 마음속으로 조롱하진 않았던가? 도움을 주더라도 보나마나 술이나 사 먹을 것이라며.

인간애와 양심의 법정에서, 이제는 판결을 내려질 차례다. 길게 말할 것 없이 모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리는 자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에게 스스로 유죄판결을 내리며 빠져린 반성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동화를 통해 피해자들을 공감할 수 있었던 우리는, 마땅히 스스로의 양심을 저울질하며 우리 마음속 추악함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가혹한 형벌을, 자기 자신에게 내려야 할 것

이다. 그런 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갖도록 하자. 더불어 도희나 태석이, 태희와 같이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상처 입는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우리 주변의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자. 영어 학원을 가기 싫다는 종원의 말이 무심코 지나치기가 어렵다. 억지로 등을 떠밀려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의 책가방의 무게보다도 더욱 더 무겁게 아이들을 짓누르는 것은, 아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모르는 어른들의 무관심이지 않을까? 어머니가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음에도 아이들이 버림받은 것과 다름 없었던 이유는 어머니와 아이들 간에 감정적 교류와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까? 과연 우리 주변의 아이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는 것일까?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과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 동화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우리 가슴을 따스하게 해 주었던 감동을 간직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가슴 한 편에 고이 간직한 감동을 관심으로 전달해주자.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관심이 하나둘씩 모여 커다란 관심을 이룰 때, 적어도 우리들의 사회는 ‘좀 더’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언뜻 무디어 보이는 질문이 날카로우며 무겁다.

최우수상

누군가의 건널목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김승주 (방패교육대 본부중대 일병)

해가 뜨겁게 내려쬐는 낮과 보름달로 온몸이 움츠러드는 밤의 간격이 넓어진 요즘, 제 몸 구석구석은 따뜻함을 더욱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몸이 움츠러들수록 마음만은 넓게 펼쳐지길 바라는 바람과는 다르게 바깥의 기온만큼 제 마음의 체온도 얼어붙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낮선 환경, 낯선 사람들, 제 피부에 닿는 모든 것들이 낯설었던 군 생활 속에서 즐거움과 보람도 느꼈지만 제 자신이 점점 삭막해지고 마음이 가물어가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걱정을 말끔히 씻어준 고마운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의 건널목 씨입니다. 벚꽃이 살랑살랑 제 이마에 내려와 살며시 봄을 알려주듯이 건널목 씨는 저에게 마음 속 따뜻함으로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첫 장을 조심스럽게 펼치고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지나치게 되는 교실이라는 단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어렸을 적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처음 열 때와

같은 두근거리는 떨림,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오명랑 작가, 아니 오명랑 선생님이 처한 상황은 88만원 세대,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를 내포한 지금의 현실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오명랑 선생님이 겪은 고독을 핑계로 한 외로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명랑 선생님이 처한 현실을 보면서 저도 현실의 벽에 부딪혔던 2010년, 제 작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임용시험에서 떨어지고 흔히 백수라 부르는 무직의 신분으로 사회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것인지를 그 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사회 속에서 별거벗은 느낌, 그리고 그 안에서의 깨달음이 이후 제가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깊이 다가왔던 것은 오명랑 작가가 고민하고 고민하던 작가의 길이였습니다. 작가란 무엇인가, 자신이 되고 싶은 작가란 무엇인가,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작가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모습은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란 무엇인지, 좋은 선생님이란 무엇인지,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습과 무언가 닮았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고민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실타래의 한 올을 꺼낸 저에게 주변 시선은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듯한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선들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선생님이란 어떤 선생님이냐를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이 갖고 있음을 조금은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명랑 선생님과 종원이, 소원이, 그리고 나경이의 첫 만남

과 그 이후로 이어지는 알콩달콩한 이야기들은 작년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제자들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종원의의 꿀밤을 부르는 뒤통수가 시간이 흐르면서 예쁜 뒤통수로 바뀌는 것은 분명 제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이 아닐까요. 책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옛 제자들을 만난 것 같은 정겹고 그리운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석이는 매사에 부정적이지만 은근히 정이 가던 우리 반 개구쟁이와 비슷했고, 태희는 제가 담임은 아니었지만 저희 반에 자주 놀러왔던 같은 학년 선생님의 귀여운 1학년 딸과 하는 행동과 말투가 정말 닮았습니다. 나경이는 날카로운 질문과 꿈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게 가장 활발하고 야무진 제자를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야기 속의 아이들이나 현실의 제자들 모두 공통의 분모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이들 제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두 사랑 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태석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거지라고 놀림 받았을 때 그 누구보다도 부모라는 존재가 꼭 필요했듯이 어른이라는 존재에게도 아이들의 존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치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을 비워야 하듯이 사랑을 받는 이가 존재해야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너무나 익숙해서 평소에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공기처럼 그 소중함을 아이들에게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명량 선생님은 건널목 씨가 그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도 건널목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야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건널목 씨를 보고 나서 마음속으로 조금은 그 소중함을 느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운 정이든 미운 정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가는 제자들과의 정과 사랑을 이 책을 읽으면서 따뜻한 몽클함으로 느껴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인내심과 노력으로 점점 말과 행동이 변하는 종원이의 모습처럼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제자들이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제자들이 선생님들에게 주는 고마운 선물이었습니다. 이 기분 좋은 그 몽클함과 고마움 덕분에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인상에 깊게 박힌 단어를 꼽으라면 주저 없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꼽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아이들의 입장이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 보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사회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 곳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통사고나 폭행과 같은 물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난, 질타, 무관심과 같은 마음을 구기는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슴 속에 깊이 내어 아이들에게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날마다 단어를 이십 개씩 외워 시험을 보는 영어보다 아무런 흥미도 목적도 없이 온 이야기 듣기 교실이 더 낫다고 말하는 종원이의 말은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처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게 등을 떠밀려 역지로 학원을 가는 아이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볼 때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떠밀린 아이들이 돌아서서 가는 길을 과연 어디일까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진정 원하고 바라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건널목 씨는 보통 어른들과 달랐습니다. 보통 어른이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법한 건널목이 없는 길이 건널목 씨

에게는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널목 씨의 그 건널목은 단지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아이들이 길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한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널목 씨가 건널목 카펫과 신호등 모자를 만들고 임시로 길에 건널목을 만드는 과정은 아이들에 대한 건널목 씨의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의 시작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어쩌면 건널목 씨는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맛있는 밥도 아닌, 멋진 옷도 아닌, 안락한 집도 아닌, 바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와 태석이, 태희 남매의 재회 장면을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호기심이 무척 많던 제가 부모님께 아이들은 들어도 모를 법한 것에 대해 물어볼 때면 “우리 아들은 아직 어려, 지금은 몰라도 돼.”, “더 크면 알게 될 거야.” 이런 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배려와는 달리 저는 어린 자존심에 상처를 받곤 했습니다. 그 때는 제 질문에 답변을 피하시는 부모님이 왜 그렇게도 야속하고 미웠는지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살짝 나기도 합니다.

태석이 엄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벌어서 오겠다는 그 말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조금 더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말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본심과는 다르게 받아들였고 그것은 아이들 가슴 속에 큰 상처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희의 천진난만한 말 “근데, 우리 왜 버린 거야?”, 이 말 한마디로 태희의 모든 마음을 표현하였고 모든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면 그리운 엄마를 본 태석이와 태희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

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희가 그렇게 매몰차게 엄마의 손을 스윌 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태석이와 태희가 원하는 것은 밥이나 집보다 엄마라는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엄마가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 아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는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이 무엇인가 고민해보는 기회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알아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받아들일 것인가 조금 더, 한 번만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세계에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특히 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붙어 다행인 점은 그러한 의사소통의 부재 속에서도 태석이, 태희 가족이 결국 서로에게 마음을 조금씩 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제각각 다릅니다.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명랑 선생님은 이것을 건널목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이름조차 없는 건널목 씨이지만 그가 보여준 실천들은 그가 누구보다 사람다운 사람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건널목이었을까.’ 건널목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잠시 지나쳐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분명 길을 건너는 데 있어 중요하기는 하지만 평소에 의식하면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건널목 씨는 그 안에 사랑을, 그리고 희생을 불어넣어 우리가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건널목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건널목이 없는 길 한 가운데 카펫으로 건널목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발하고 대단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샘솟는

원동력은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사랑을 대신 전해줄 수 있는 수단으로 옮겨온 것, 그 것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실천은 마치 나비 효과처럼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비뿔어질 수 있는 한 아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아이로 바뀌게 해주었고, 현실을 절망으로 생각할 뻔 했던 어느 남매에게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건널목 카펫은 생김새는 다소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생김새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최소한의 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널목 카펫이 바쁘게 펼쳐지던 그 자리에 진짜 건널목이 생겼을 때 건널목 카펫은 더 이상의 역할이 없는 것 같아 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아 이제 건널목 카펫은 경비실 한 칸에 자리 잡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잠시였습니다. 건널목 카펫이 태석이와 태희를 위한 따뜻한 카펫으로 바뀌던 그 순간, 건널목 카펫은 새롭게 재탄생하였습니다. 그때의 그 희열이란. 어찌면 건널목 카펫은 이 순간을 위해 카펫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건널목 카펫은 비록 용도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건널목을 지나는 아이들이나 태석이, 태희 남매에게 모두 똑같이 사랑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랑,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랑, 그 모두 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건널목 씨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점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이처럼 사랑한 적이 있었는지 지난날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먼저 바라지는 않았나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건널목 씨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보다 누군가를 사랑 하는 것입니다. 건널목 씨는 분명 그 누군가를 항상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김려령 작가의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는 참으로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에는 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기도 하고, 옛 제자들과의 추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아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기도 하고, 삶과 사람, 사랑에 대해 고민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는 참으로 아리따운 책입니다. 저의 내면을 전보다 더 가꾸고 푸근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직접 말하는 시는 아니지만 날카로운 바늘로 가슴 한 켠에 남아있는 양심을 찌르는, 너 자신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적이 있느냐는 따끔한 충고를 전해 주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 시가 떠오르는 이유는 건널목 씨도 알게 모르게 저에게 충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누군가의 건널목이 되어 준 적이 있더냐’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누군가의 건널목이 되어 준 적이 있었을까요? 저도 누군가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 주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건널목 카펫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곁에 있어도 언제나 그리운 건널목 씨처럼 말입니다.

우수상

그 사람을 본적이 있나요? 를 읽고

박승휘 (방패교육대 교육1중대 상병)

처음 이 책을 접하게 된 이유는 독후감 경연대회를 통해서이다. 평소에 책을 잘 보지 않았던 나에게는 이 책의 제목은 너무나도 생소 했고, 별로 재미있는 내용이 아닐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독후감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상품을 얻기 위해 참고 책을 읽어보기로 마음먹고, 책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처음 책의 내용 중 제목을 보았다. ‘이야기 듣기 교실’이라는 제목과 책의 내용을 보았을 때 난 유치한 동화 같기도 했고 거부감이 느껴지기 시작한 이 책을 정말 끝까지 읽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품을 위해 참고 책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책의 페이지가 몇 장 넘어가고, ‘건널목 아저씨’라는 인물이 소설에 등장했을 때부터는 이미 난 책 속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고, 상품을 벌써 잊어버린지 오래였다. 난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소설속의 등장인물이 되어서 상황을 생각해보고, 소설을 쓴 작가가 되어 ‘이 소설을 왜 썼을까?’ 상상도 해보면서 소설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었다.

책 속의 등장인물인 ‘건널목 아저씨’는 22년을 살아온 나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해준 인물 중 하나였다. 삭막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과는 반대로, 소설 속 인물인 ‘건널목 아저씨’는 아내와 자식을 잃은 고통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의 이익보다는 남을 위해 살아오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아파트 아이들의 등하굣길의 건널목이 되어주었고, 부모의 부부싸움, 아버지의 죽음과 가난에 시달려 돈을 벌기 위해 떠난 어머니 때문에 험난한 세상 속에 버려진 아이들에게는 부모를 대신하여 친구가 되어주고, 보살펴주는 부모가 되어 주었다.

이러한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나는 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과연 나는 22년을 살아오면서 남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던 적이 있었으며, 남을 위해 나를 희생했던 적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봉사활동이라고는 학교에서 주어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한 경우가 많았으며, 내 주장을 굽힐 때는 속으로 ‘참는 게 이기는 거다.’, ‘더러워서 내가 참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양보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책을 읽을수록 내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웠으며, 많은 반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가 처음에 가졌던 이 책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작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이 책의 표지, 제목만 보고 책의 내용을 판단했었다. 하지만, 책을 읽을수록 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 중 하나였던 내용에서 내 추측이 틀리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 내용은 바로 ‘동화작가 오명량’ 으로 나오는 등장인물이 말하는 이야

기를 어머니께서 탐탁지 않아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소설을 읽으면서 그 궁금증은 저절로 해결이 되었고, 그 이유가 이야기의 내용이 지어진 내용이 아니 실화이며, 어머니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아이가 바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소설의 끝은 상처받으며 살아온 아이들 도희, 태석, 태희 남매는 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고, 태희 남매와 어머니의 오해도 풀렸으며, ‘건널목 아저씨’는 자취를 감췄다는 결론으로 끝이 난다.

앞의 내용은 이 소설을 짧게 설명한 것이지만, 이 소설을 쓴 작가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아픔을 남에게 이야기 하며, ‘건널목 아저씨’라는 사람의 언행을 독자의 가슴 깊은 곳에 기억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난 이 책을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권하고 싶다. 이 책을 읽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 크진 않지만 소소하게 배려하며 살 수 있는 ‘건널목 아저씨’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수상

그 사람을 본적이 있나요? 를 읽고

김 건 (방패교육대 교육3중대 상병)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소설은 ‘완득이’의 저자로 유명한 김려령 작가의 장편소설이다. 한때 엇나가려던 내게 그동안 잊고 지낸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다시 일깨운 소중한 책이 바로 김려령 작가의 ‘완득이’였기 때문에 이번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운동에 김려령 작가의 소설이 나와 매우 기대하고 책을 받았다.

장편소설이라는 단어에 무색할 정도로 작고 얇은 하얀 책, 어쩌면 아담한 이 책의 모습이 내 호기심을 더 자극했는지도 모르겠다. 일단 호기심 가득 첫 장을 넘겼고, 진한 감동과 함께 마지막 장을 덮었다. 그리고 이번엔 이 소설이 아담한 크기에 무색할 정도로 탄탄한 이야기와 진솔한 감동을 주어서 놀랐다.

김려령 작가의 소설은 경제적 하층민들의 삶과 비정상적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을 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고조된 갈등을 등장인물들이 희망을 얻어 그 갈등을 차근차근 풀어가 는 식의 전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김려령 작가의 다른 작품인 ‘완득이’같은 경우에도 곱추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담임

선생님 그리고 주인공 완득이가 등장한다. 완득이는 곱추인 아버지와 지적장애를 가진 삼촌과 함께 조그만 방에 살면서 여러 갈등이 생긴다. 처음에는 뼈딱하던 담임선생님과의 관계가 외국인 어머니와의 만남 등으로 개선되고 공부보다는 킥복싱의 꿈을 키워 간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소설 ‘그 사람을 본 적 있나요’는 오명랑이라는 필명의 무명 동화작가가 이야기 듣기 교실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오명랑 작가가 세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오래된 동화이야기. 사실 자신과 가족들의 아픈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을 주었던 ‘건널목 씨’라는 인물을 기억하는 내용이다.

어느 날 아파트 뒷문 쪽 도로에 건널목 카페트를 펼치고, 신호등 모자를 쓴 ‘건널목 씨’가 등장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도와준다.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주민들과 친해지게 되어 비어있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묵을 수 있게 된다. 경비실에서 홀로 조용히 지내던 건널목 씨는 도희라는 여자아이를 만난다. 도희라는 인물은 매일 밤 심한 부부싸움을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피해 밖으로 나오게 되고 건널목 씨에게로 숨는다. 건널목 씨는 부모님 때문에 외톨이가 된 도희를 태석이와 태희 남매에게 데려간다. 태석이와 태희 남매는 아버지가 ‘위’건강 악화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돈 벌어오겠다고 나간 후 연락이 끊겨 건널목 씨의 도움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중이었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부모님이 없는 태석이는 아직 어린 여동생 태희를 보살피면서 열심히 살아보지만 동네 아이들은 그런 태석이를 거지라면서 놀리고 괴롭힌다. 후에 도희가 할아버지댁으로 떠나고 태석, 태희의 어머니가 돌아오니 건널목 씨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다.

간략히 요약하면 부모님의 잦은 부부싸움으로 외톨이가 된 도희, 부모님 없이 힘겹게 자라야 했던 소년소녀가장 태석과 태희가 건널목 씨라는 인물로 인해 희망을 얻고 갈등을 조금씩 해결하게 되면서 그를(건널목 씨) 기억한다는 내용의 소설이다.

‘완득이’와 ‘그 사람 본 적 있나요’ 두 소설 모두 비정상적인 가정과 경제적 빈곤층의 삶과 갈등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그 사람을 본 적 있나요’는 나도 경험해 봤고 오래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었다.

이제 이 글을 마무리 지으면서 김려령 작가가 다시금 고마워진다.

IMF. 부모님의 갑작스런 이혼. 막내 동생의 교통사고. 부모님이 아니 사촌들의 보살핌 속에서 몇 년 동안을 살아온 내 불행했던 초등학생 시절이었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와 동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아버지. 그리고 고생하면서도 정성껏 길러주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촌들. ‘그 사람을 본 적 있나요’는 내 주위에도 건널목 씨 같은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도와준 좋은 소설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처럼 더 늦기 전에 그분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우수상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를 읽고

김종인 (방패교육대 교육2중대 일병)

여느 때와 같이 부대 안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과를 진행하던 어느 날이었다. 일과를 마치고 게시판을 지나가다 문득, 독후감 쓰기 대회에 관한 공문을 보게 되었다. 책 제목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이름은 낯설지만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엔 충분했다. 그 사람이 누굴까? 나의 손은 어느새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이 소설은 작가가 자신의 경험담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듯이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작가가 자신을 직접 개입시키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인데 마치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보다 친근하고 쉽게 작가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 소설에서 작가가 그토록 찾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은 ‘건널목씨’라는 인물이었다. 건널목 씨는 작가가 부모님 문제 때문에 매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항상 찾아와 따뜻이 보살펴 주고 때로는 부모님 역할을 해주던, 단비 같은 존재였다.

그는 오래 전에 끔찍한 교통사고로 가족들을 잃고 난 뒤,

그 후부터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간이 건널목 카펫을 펼치고 교통 통제를 했다. 이러한 그의 배려심 덕분에 사람들은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 있었고, 아리랑 아파트 주민들과 경비원의 도움으로 경비실에서 지내게 된다. 이 때, 작가의 새언니인 ‘도희’를 만나게 되고 건널목 씨가 도희를 작가의 집에 데려감으로써 작가(태희)와 작가의 오빠(태석)까지 서로 모두 알게 된다. 이 어린 세 아이들은 ‘건널목 씨’라는 고마운 매개체 덕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이겨내고 있었다. 당시 태희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집을 떠난 상태였는데, 어머니가 돌아오자 건널목 씨는 불현듯 사라지고 말았다. 예고도 없이 아무런 행적도 남지지 않은 채....

어른이 된 태희는 어머니와의 갈등을 풀고 잘 살고 있었고 도희가 태석과 결혼하여 한 식구로써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아련한 향수를 떠올리며 힘들고 가난하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 잠시나마 은혜를 베풀어준 단비 같은 존재였던 건널목 씨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마지막 책장까지 모두 넘긴 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단비 같은 존재였던 적이 있었을까?’ 이에 나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요즘 사회 세태를 들여다보면, 사람들에게서 인간적인 ‘정’을 찾기가 예전보다 힘들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챙기기도 벅찬 세상이다. 인생을 얼마 살아오지 않은 나조차도 안타깝게도 그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나도 그랬으니 말이다.

그러나 건널목 씨가 보여준 행동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누군가가 보인 작은 관심과 배려가 다른 누군가에겐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잊혀지지 않을 커다란 고마움의 기억과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바쁘고 빠르고 무

관심이 팽배해진 삭막한 지금 세상 속에서, 작가가 그토록 찾고 싶은 ‘그 사람’이 보여준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태희, 태석, 도희 그리고 그들의 식구들...이들에게 그토록 뜨거운 존재였던 건널목 씨를 다시 한 번 떠올리며, 몽클거리 는 가슴을 품고 다짐해본다. 나 역시 그런 존재가 되겠다고. 차디찬 세상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따뜻한 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다

장려상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를 읽고

박두현 (방패교육대 1중대 일병)

짧지 않은 군 생활 9개월째 하면서 제대로 읽은 책은 단 한 권도 없었다. 그런 나에게 가뭄에 비온 듯 다가온 이 책은 내게 독서에 대한 신선함과 활자에 대한 반가움을 만끽하게 해주었다. 이 책의 저자인 김려령 씨의 문체는 사회에 있을 때 읽어 본 『완득이』 때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딱딱하지 않고 일상적인 듯한 여자 친구가 내게 들려주는 한편의 긴 이야기 같은 느낌이었다. 이 책의 제목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주된 정서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야기의 첫 시작에 작가 ‘오명랑’은 이야기 듣기 교실 모집 광고를 낸다. 듣기 잘하는 아이가 말도 잘한다는...사실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점점 머리가 커지고 보니 난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강했다. 그래서 이러한 듣기 교실을 내면 ‘과연 누군가 찾아올까?,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왔고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총 세 명의 아이들이 왔는데,

그 아이들 모두 각자의 개성이 뚜렷했다. 종원이는 흔히 볼 수 있는 개구쟁이, 소원이는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 나경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범생 같은 아이였다. 이 아이들과 함께 첫 이야기 ‘그리운 건널목 씨’가 시작된다.

‘건널목 씨’ 설마 이름인가 했더니 나중에 가서 ‘아!’하고 알게 된 반전이 있어 순수 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건널목 아저씨가 쓴 모자를 묘사한 장면에서 ‘책 표지의 남자가 이 사람이고, 또 주인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건널목 이라는 것은 그 아저씨가 카펫과 함께 건널목 역할을 해서 그런 것이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이야기 파악을 할 수 있었다. 작가 ‘오명랑’씨가 이야기를 멈췄을 때 나도 듣기 교실의 학생이 된 것처럼 너무나도 아쉬웠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은 더욱 더 책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었다.

그렇게 다음 시간이 되어서 ‘건널목’씨가 쌍둥이 아이를 구하려다 크게 다치게 된 이야기에서 처음 건널목부터 시작 된 쌍둥이들과의 인연이 심상치 않게 느껴지고, 건널목 씨의 선한 마음씨를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었다. 그러한 선한 마음 덕에 경비실에서 살 수 있는 좋은 일도 생기게 되어 마음이 놓였다.

경비실에서 살게 된 후로 그만의 보이지 않는 온기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그동안 난 너무 이기적이고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나?’ 반성을 많이 하게 됐다.

그 이후 ‘도희’라는 새로운 아이가 등장하는데, 집에서 자주 싸우는 부부의 자녀가 집을 피해 딴 곳으로 새는 모습은 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 안타까운 부분이었다.

안 생길 것 같던 건널목이 진짜로 생겼다고 하여 수많은 사람들 중의 단 한 사람의 올바른 생각이 이렇게 까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란 기분 좋은 승리감을 맛 볼 수 있었다.

이야기 속 ‘도희’라는 아이는 ‘건널목 씨’가 매주 수요일마다 가는 고물상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건널목’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작가 ‘오명랑’이 엄마와 새언니에 대한 얘기나 생각들을 보고서 지금 하는 얘기는 그동안 지하실에 꽂꽂혀 놓았던 자신들의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하실에 살고 있는 ‘태석’, ‘태희’를 보고서 난 과거 초상화를 보는 듯했다. 우리 집도 아빠와 엄마의 이혼으로 인해 엄마는 언젠가 데리러 오겠다는 말만 하고 떠나고, 아빠도 돈 벌러 가겠다는 말만 남기고서는 친할머니 손에 누나 둘과 내가 맡겨졌었다.

나도 ‘태석’이와 같이 든든한 버팀목인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어린아이처럼 굴어선 안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다. 이러한 것 외에도 이쪽 가족과 내 가족과의 공통된 부분이 많아 더욱 더 감정적으로 몰입해서 책을 읽을 수 있었다.

‘태석’이와 ‘태희’에게 드디어 엄마가 찾아오고 ‘건널목 씨’가 떠날 때, 난 그 누구보다도 그 아이들의 슬픔에 동조할 수 있었다. 우리 엄마가 서울에서 돈 벌어왔다고 누나들과 날 데려갈 때 그동안 우리의 버팀목이자 건널목이었던 친할머니와 이별할 때, 그 때의 감정은 엄마가 드디어 왔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친할머니와의 이별에 대한 슬픔이었다.

가벼운 읽음으로 시작한 이 책은 나에게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을 느끼게 해준 뜻 깊은 책이 되었다. 작가 ‘오명랑’이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이 담긴 얘기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도 이러한 큰 용기를 갖게 된 것은 얼마 전

이였다. 아마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꺼내 놓음으로써 ‘오명량’은 자신의 과거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욱 당당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 책을 읽고서 한 사람의 따뜻함이 전부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또 그러한 얘기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인내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나도 남은 군 생활, 이 책을 통해 느낀 점을 몸소 실천하여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장려상

그 사람을 본적이 있나요? 를 읽고

박민규 (방패교육대 3중대 상병)

얼마 전 20대 여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서 아사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집 앞에 ‘먹을 것이 있으면 조금만 주세요’ 라고 써놓았음에도 이웃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굶어 죽은 데에는 물론 물질적이거나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타인들의 ‘관심’이 없었기에 벌어진 일이라 다들 몰인정해진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더욱 안타까워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드는 빵이 아니라 타인의 사랑으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나누는 그 선 위에 이 책은 말하고 있다. ‘당신의 건널목 아저씨는 어디에 있나요?’

이 책에서 나온 ‘건널목 아저씨’라는 이름은 이 아저씨가 늘 건널목이 그려진 카펫을 들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간이 건널목을 놓아 주는 데에서 사람들이 붙여준 일종의 애칭이다. 늘 밝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아저씨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아픔이 있었다. 그럼에도 단순히 절망만 하는 것에서 멈추기보다는 더 이상의

희생자들을 막기 위해 정처 없이 떠돌면서 건널목을 놓고 있었다. 이런 아저씨의 이타적인 사랑이 마을 주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고, 가정 폭력에 소외된 도희와 가난한 태희 남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었다.

단순히 물질적인 사랑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그를 위해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이 있고 같이 느낄 수 있으며 타인이 전부 무관심한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희망이다. 그렇기에 태희 남매는 부모가 없는 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아저씨에게서 사랑과 희망을 배운 도희는 그런 태희 남매에게도 자신이 배운 사랑과 희망을 줄 수 있었다. 그렇게 아저씨는 사랑을 주고 이윽고 다른 소외된 사람을 향해 떠나 버린다.

나에게도 태희 남매와 같았던 한 때가 있었다.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고 빚을 갚는 데에 벅차 집은 늘 어려웠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병수발을 하기 위해 사춘기였던 나와 동생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형으로서의 책임감과 한창 시작된 사춘기로 인한 방황, 학교에서 급식 보조금을 받았을 때 친구들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조마조마함과 창피함. 그 모든 것이 나를 괴롭게 했고 ‘내가 이렇게 힘든 데 세상은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방향 없는 미움으로 가득 찼었던 내게도 ‘건널목 아저씨’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희망이란 걸 배울 수 있었다.

1층에 사시던 아주머니께서 아침마다 늘 올라오셔서 우리의 아침을 차려주시고 학교에 가기 전 옷을 다려주셨다. 아주머니도 남편과 사별하시고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늘 우리 앞에선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그런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모두가 내게 관심이 없지만은 않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렇기에 책 속의 태희 남매에게 있어 아저씨의 존재를 알 수 있었고, 다 큰 남매가 아저씨에게서 배운 사랑을 타인에게 베푸는 모습이 가슴 속에 깊게 박혀왔다.

희망이 사랑을 만들고, 사랑이 사람을 만든다. 작은 희망은 마치 화롯불과도 같다. 작은 화롯불로는 책을 읽거나 뭔가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 작은 불이 우리의 손과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 줄 수는 있다.

한 번이라도 그 따스함을 느낀 사람들 중 누군가 타인에게도 옮긴 그 작은 불꽃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고, 이윽고 공동체의 따뜻함이 사회를 따뜻하게 해서 소외되어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불길을 전달하리라 믿는다. 그렇기에 이 책을 본 당신에게도 감히 묻는다.

‘당신의 건넌목 아저씨는 어디에 있나요?’

장려상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를 읽고

이재운 (방패교육대 1중대 병장)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나는 전역하기 전까지 부대에서 남는 시간에 최대한 많은 책을 읽고 나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여러 책을 읽던 중 방패교육대 게시판에 걸려있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알림지에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경연대회를 한다는 것, 책만 읽고 독후감을 써보지 않은 지도 2년이 다 되어가는 나에게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글을 써서 글쓰기 능력을 되살려 보고 정말 신선한 경험을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포상휴가와 문화상품권이라는 멋진 포상이 걸려 있기에 굉장히 재미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기에 흥미롭게 이 책을 읽게 되었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독후감을 쓸 수 있었다.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책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대화 형식으로 글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항상 딱딱한 자기 개발 서적을 읽다 보니 이 책은 더욱 쉽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내용 시작을 이야기과외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며 시작한다는 점이 신선하고 인

상 깊었으며 책을 읽는 중간 중간 내용면에서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주인공 이름을 건널목이라고 지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위험한 건널목에 자신이 횡단보도, 신호등이 되어 아침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건널목을 위험하게 건너다니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 동네 놀이터에서 불량학생들에게 당하고 있는 쌍둥이 아이들을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쌍둥이들을 보호해주는 용감함, 일찍이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불쌍한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처럼 매주 한번 씩 들려 보살펴주는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주인공이 아이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들이 마지막에는 자기 가족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이 또 하나의 반전으로 책을 읽는 동안 지루하지 않을 수 있었던 하나의 요소였던 것 같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었고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마음 깊이 감동받아 더 나은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부대가 병영도서관이나 이러한 독후감 경연대회 같은 것들이 더욱 활성화 되어 좋은 책들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고 남은 기간 동안 병영도서관을 애용해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끝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은평구립도서관 분들과 방패교육대 간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방위사령부 방패교육대

독후감상문 모음

■ 일병 오장석(방패교육대)

우연히 독후감 경연대회로 나는 ‘그 사람을 본적이 있나요?’를 접하게 되었다. 책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닌 나는 처음 그 책을 접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페이지 수와 읽기 쉬운 글씨체에 너무 좋았다. 작가가 직접 나에게 얘기해주는 것처럼 현실감 있는 문장들에 2시간 만에 책을 한 번 다 읽게 되었다.

글 속을 들여다보자면 얘기를 해주는 동화작가 ‘오명랑’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남매 ‘종원’이와 ‘소원’이, ‘종원’이와 같은 학교 다른 반 친구인 ‘나경’이가 나오고, 작가의 얘기 속 인물 ‘건널목 씨’ 남매인 ‘태식’이와 ‘태희’ 그리고 부모로부터 소외된 ‘도희’가 주요 인물로 나왔다.

이 책의 첫 부분을 읽었을 때 나는 ‘건널목 씨’의 선행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건널목이 없는 도로에 카펫을 깔고, 직접 신호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였고, 아파트에 거주하고부터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따뜻함까지 베풀어 주었다. 나는 ‘건널목 씨’를 보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떠올랐고, 나의 어린 시절 많은 도움을 줬던 주변사람들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해주었다. ‘건널목 씨’는 길가의 건널목 뿐만 아니라 ‘태식’이와 ‘태희’, ‘도희’에게도 건널목이 되었다. 말없이 떠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움을 남겼지만, 그는 베푸는 사랑과 따뜻함도 남겼다. 이 세상에 실존하고 있는 많은 ‘건널목 씨’에게 나는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소외된 아이들처럼 힘든 친구들에게도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과 조건 없는 사랑은 존재하고 있

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200여 페이지 남짓 되는 짧은 글이지만 이 책을 통해 따뜻함을 느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책을 많이 읽고, 독후감을 한 번씩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글의 제목인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라고 나에게 물어봤다면 나는 단연코 ‘보았고, 아직 내 곁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상병 문준희(방패교육대 1중대)

사회에서 한 달에 1권이상은 꼭 책을 읽는 나다. 군에 입대한지 1년이 다되어 가지만 한 달에 한 권 이상 읽는 건 변함이 없었다. 여태껏 읽었던 책들은 자기개발서, 추리소설 같은 흥미롭고 유명한 작가 혹은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그러한 책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방패교육대에서 나눠준 “그 사람을 본적이 있나요?”란 책은 내가 여태껏 읽었던 책과 상반되고, 처음 접해보는 책이었다. 책의 두께도 적당해서 임무수행하며 짬짬이 시간을 내서 읽기에도 부담 없는 책이라 좋았다.

나는 보통 책을 읽기 전 작가의 말을 먼저 읽어서 지금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 간보기를 하는 편인데 이 책의 작가의 말을 읽어보니 가슴 따뜻해지는 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할 때 나는 나의 어릴 때를 회상하며 읽어보았다. 내 인생에 과연 건널목 아저씨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 나에게도 어릴 적 저런 순수한 마음과 책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는지 말이다. 생각해보면 나에게 건널목 아저씨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저렇게 책 읽어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건널목 아저씨 같은 사람은 내 어릴 적 집 앞의 구뎃방 아저씨 같다. 학교에 갈 때마다 인사해주고, 집 앞에 바로 차도여서 위험했는데 아침 일찍 구뎃방을 여는 아저씨는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항상 조심히 다녀와라, 이런 따뜻한 한마디를 항상 해주고 가끔씩 껌 하나씩 나눠주며 ‘양치 안했지? 껌 먹고 입 냄새 없애야 여자 친구도 생기는 거야!’ 해주는 아저씨가 생각되었고, 지금은 그곳에 살지 않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 아저씨를 뵙고 싶어졌다. 작가의 말이 공감된 것이 책은 들으라

는 것보다는 읽으라는 것으로 많이들 의식하지만 책을 읽는 것 보다 듣는 입장이 된다면 상상력이 좀 더 풍부해져 듣는 동안은 영화 보는 듯한 착각을 해줄 것 같았다.

나의 성격은 약간 독특해서 남들과 다르게 상상하거나 혹은 남들과는 좀 다르게 살자 라는 성격인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관점으로 책을 써내려가니 독특한맛에 더 끌리게 되었다.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사이사이에 종월이의 툭툭댐이 적당히 이야기수업을 잘 끊어주는 면도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선생님의 이야기에 심취해서 한 장 한 장 넘길 때 마다 수업이 끝나는 게 아쉬웠다.

중간부분에서 결국 건널목 아저씨 이야기가 자신의 경험담이며 실화인 것이 간접적으로 들어날 때 반직적인 요소가 있겠거니 해서 더욱 재미가 늘었다. 태희, 태석, 도희가 나왔을 때가 클라이맥스인 것 같다.

초장에서 건널목 아저씨의 관한 얘기가 나오며 책의 주인공 위주로 내용이 나오다가 중간부턴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가 접목되면서 아이들 하나하나의 개성과 어린 순수한마음이 나오니 책의 재미가 더해졌다.

또한, 내 전공이 사회복지학과 인데 내가 여지껏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면서 건널목 아저씨의 행동을 보고 많이 반성 하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복지를 하게 될 것이며 접근할건지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었다.

나는 복지가 좋아서 과를 정했지만 막상 학교에 입학해보니 실습보단 주로 학문적으로 하는 것이 많아 직업적, 미래적으로 혼동이 있었지만 건널목 아저씨의 행동을 보고 내 스스로도 많은 것이 변화된 것이다. 다르게 생각해보니 꼭 복지학과를 나와야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키는 대로, 하고 싶어서 복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태석이와 태희 얘기가 나오면서 어머니도 슬슬 그 이야기시간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일 때 마음 한 구석이 짠해졌다. 어느 국가든, 시골이든 농촌이든,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부모는 다 똑같은 것 같다. 어린 자식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힘들 텐데 자신의 피로 나온 아이들을 부모 없이 놔두고 나갔을 어머니의 마음을 상상해보니 울컥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 어딜 가나 불쌍한 사람들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그 불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용기, 인내를 보면 배울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을 나와 비교하면 한없이 부끄럽고 분발해야겠다는 생각만 든다.

이 책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다음 교시 때 문제를 어떻게 내고, 앞으로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세세히 들어보고 싶었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들은 한 명으로써 주인공의 얘기를 얼마나 잘 들었나 문제도 풀어보고 싶었고, 태석이와 도희가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그 과정이 궁금했다. 나는 이 책이 어린이들을 위한 책보다는 성인들에게 어린 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책인 것 같다. 나도 때 묻지 않은 순수했던 시절을 생각하며 어릴 적 부유하지 않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메이커, 좋은 것, 사주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게 되는 가슴 찡해지는 책이었다.

여태껏 읽어보지 못한 장르의 책이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 가슴 따뜻해지는 책을 많이 접해서 나 스스로 반성해보고, 추억을 가져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 대한민국 모든 작가님 감사합니다.

■ 일병 안영준(방패교육대 1중대)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뭘야 엄청 얇네... 내용도 별거 없겠네.’ 라는 생각에 제목만 보고 흔한 주인공이 그리워하는 내용이겠거니 하였다. 하지만 이야기 전개가 나를 흥미롭게 한 것은 주인공이 이야기듣기 교실이라는 신선한 소재가 나를 이 책에 한걸음 다가가게 했다.

건널목 아저씨라는 인물이 처음 표현될 때, 난 주인공의 제자들과 같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그런 동화어나 나오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였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와 같은 건널목이 없는 위험한 곳에 나타나 아이들을 지켜주는 인물이라 생각하고, 그냥 평범한 동화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생각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순히 건널목 아저씨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과 그 주변인물의 갈등관계도 관련이 있어 흥미로웠다.

처음에 건널목 씨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때는 단순히 건널목 씨의 선행에 따른 위기, 갈등 등이 나타날 줄 알았지만 주인공이 들려주는 이야기 외적으로 주인공과 주인공의 어머니 그리고 새언니와의 갈등 관계를 보여줌으로 인해 이 이야기가 단순히 아이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음을 느꼈다. 그것을 느낀 부분은 주인공이 수업을 끝내고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나눌 때였다. 그때부터 주인공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하고 집중해서 읽었다. 읽다보니 예상대로 주인공과 어머니 그리고 새언니와의 관계가 그 이야기에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인공이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자신의 마음구석에 박혀있던 어머니와의

갈등의 뜻을 뽑아내었고, 또 건널목 씨를 잊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며 나와 공감되는 부분이 이야기 안에 있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책이 워낙 얇아 이야기에 빠져있을 때 책이 점점 얇아지는 것이 너무 슬펐다 정말 짧은 이야기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있었고, 나 자신도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정말 군대에 와서 독후감을 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오랜만에 독후감을 쓰다 보니 독후감이 두서없고 난잡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재밌는 책을 읽고 나 자신이 느낀 점을 글로 나타내 보니 뭔가 보람 있고 ‘내가 책을 제대로 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생기지 않더라도 틈틈이 책을 읽고 한번쯤은 이렇게 나만의 생각을 표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이번 독후감으로 느꼈다. 감사합니다.

■ 일병 류원선(방패교육대 1중대)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책을 접하는 순간 질문을 받았다. 책을 피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다 읽을 때까지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극 중 필명이 오명랑인 주인공은 오랜 무명시절의 염증에서 벗어나고자 시작한 이야기교실에서 귀엽고 개성강한 아이들 셋(제자들)과 마음을 열고 주인공 가슴 깊이 박혀있던 어디에도 쓰이지 않은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 난 종원이, 소원이, 나경이 틈에 낀 투명한 제자가 되어버렸다. 이야기가 시작되면 몰입도가 굉장했다. 다른 책들처럼 불타는 러브스토리라던가 ‘아임 유어 파더’와 같은 출생의 비밀 등의 자극적인 소재는 없었지만 그에 뒤지지 않는 이 책의 잔잔한 순수함에 빠져버렸고 이야기 속 주인공과 이야기 속 이야기의 등장인물간의 연계성이 뛰어나 경계감 없이 집중하여 책을 맛있게 읽을 수 있었다.

오명랑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건널목아저씨에 대한 내용들이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글 속 화자와 그의 어머니, 새 언니의 이야기인 게 밝혀지고 이야기속 내용들이 먼 과거가 된 시점에서 글 속 주인공의 안타까운 사연들과 이야기 중간 중간에서의 어머니의 행동 그리고 새 언니의 갑작스런 집 방문으로 건널목 아저씨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킨 주인공들의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과거와 현재가 오버랩 되며 피부속까지 느껴졌다.

이 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널목 아저씨는 위험한 도로에 손수 만든 카펫 건널목을 펼쳐준다. 건널목 아저씨는 도로 뿐만 아닌 태희, 태석, 이들의 어머니, 도희의 삶 가운데에도 건

널목을 놓아주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던 이들을 같은 지붕아래 살게 해주었다. 건널목 아저씨로 인해 아이들은 서로 알게 되었으며 우연인지 운명인지 몰라도 자식을 버린 줄만 알았던 태희, 태석이의 어머니도 돌아왔다. 널브러져 있던 퍼즐들이 제자리로 다 돌아왔을 때 건널목 아저씨는 이슬처럼 사라졌다. 건널목으로 생긴 아이들의 인연은 어느새 같은 과거를 간직한 가족이 되어버렸다. 어딘가 남모를 고통에 떨고 있을 아이들과 위험한 도로를 찾아 건널목 아저씨는 떠났을 것이다.

책에서 주인공이 결심했던 독자에게 마음을 열자라는 결심은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구성으로 이미 독자들 까지도 청취자로 만들어 버렸고 결심은 이루어졌다.

처음 보았던 이 책의 원문,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누구든 봤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숭고한 희생정신과 배려도 많은 도움을 주는 이들 모두 보이지 않는 건널목을 어깨에 걸쳐 메고 마음과 마음사이에 펼치고 있을 생김새 다른 건널목 씨니깐. 어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책을 건네주며 똑 같은 질문을 안겨주고 싶다. “이 책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럼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 일병 안재관(방패교육대 교육2중대)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제목에서부터 진한 여운과 그리움이 남는다. 첫 장을 펼치기도 전에 나는 웬지 모를 그리움과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났다. 첫 페이지를 넘긴 순간 책은 나의시선을 사로잡았고 무엇에 홀린 듯 끝까지 쉼 없이 달려 나갔다. 무거운 내용은 아니지만 내용과 전달하려는 의미는 상당한 무게가 있었다. 후반부엔 독자인 나마저도 ‘건널목 씨’가 무척 그립고 보고 싶었다.

21세기 자기 할 일에만 바쁘게 치여 사는 현대인들 속에서도 모르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이웃들 간에 정이 그리웠었나 보다. 그렇다. ‘그리운 건널목 씨’는 우리가 점차 잃어가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하지만 모두가 아쉬워하는 우리 사회의 ‘정’이자 ‘관심’인 것 같다.

이 책에서 건널목 씨는 태석이와 태희 그리고 도희에게, 어쩌면 현 사회에서 버림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춥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슴으로 몸을 녹이고 한줄기 희망을 쥐어준 마지막 생명선이었다. 건널목 씨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태희는 과연 밝고 명랑함을 유지하여 오명랑 동화작가가 되어 다른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정을 나눠 줄 수 있었을까?

미국 유학생살을 하면서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다. 이 영화에서는 ‘Pay Forward’라는 개념을 전달하고자 한다. ‘Pay Back’이 보답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Pay Forward’는 무엇일까? 이것은 남에게 받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 갚지 않고 그 사람 외 다른 10명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는 개념이며 이것은 나비효과처럼 퍼져나가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낸다.

이 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건널목 씨로 인해 태석, 태희, 도희는 물론 나아가 종원이, 소원이 나경이 까지 영향을 받고 나경이가 쓸 동화로 인해 다른 여러 아이들도 우리가 잊고 있던 사회의 따뜻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Pay Forward'의 좋은 예이다.

'사회가 또는 환경이 변했다'는 핑계에 앞서 우선 나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 한심했다. 건널목 씨, 태석, 태희 그리고 도희가 처한 환경을 보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 정을 아낌없이 베풀며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을. 나를 돌아보니, 남부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이익을 뒤쫓기만 바빴다. 항상 내 앞에 있는 사람만 쳐다보며, 뒤쳐진 사람들을 돕고 이끌어 주는 것이 훨씬 보람차고 가슴 따뜻한 일이라는 것을 그동안 몰랐다.

이 책이 나에게 준 가장 의미 있는 메시지는 우선 구차한 변명은 집어치우고 '나로부터 세상이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부터 어느 샌가 변해버린 이 세상을 향해 새로운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배려와 관심, 그리고 정을 나는 누구한테 주었을까? 누구하나 나를 그리워하거나 기다려주기는 할까? 나는 스스로에게 고개를 들 수 없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를 위해 슬피 울어줄 사람들이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했던지는 벌써 어언 옛날. 삶에 치이고 사회에 치이고, 비겁하게 변명만 해 왔던 것 같다.

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주었던, 가슴에 뜨겁게 와 닿았던 글귀가 하나 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자는 성공한다. 그러나 흐름을 일으키는 자는 역사에 남는다.' 흐름을 일으키는 것이 별건가? 나부터, 사회가 주저하는 일을 나부터 한발 한발 내딛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면 된다. 인생의 성공, 실패 여

부를 떠나서 정이 가득한 삶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닌가. 이 책은 그런 책이다. 주저하는 모든 이들을 일으켜 세워 가슴에 불을 지펴주는, 자기 갈 길 바쁜 현대인들에게 멈추라고, 뒤를 한 번 보라고 소리치는 그런 책이다.

나는 모두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나뿐만 아니라 현시대의 어른, 아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이 책으로 인해 다시 한 번 가슴속에 정과 배려, 관심의 씨앗을 품고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건널목 씨’가 더 이상은 그림지 않은, 이제는 너도나도 ‘건널목 씨’라 불리며 활기차게 거리를 활보하는, 그야말로 살맛나는 그날이 오길 바란다.

■ 이병 박준성(방패교육대 교육2중대)

이야기 듣기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건널목아저씨가 등장한다.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널목아저씨가 누굴까?’라는 호기심으로 처음 시작했다. 다르게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다른 책과는 달리 상이한 방법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액자식 구성으로 된 이야기이다. 그러나 보통의 액자식 구성과 달리 내부의 이야기를 외부의 이야기에 끌어다가 썼다.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말하는 건가?’ 이러한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호기심을 자극시켰다.

처음에 ‘오명랑’이라는 예명으로 주인공의 이름을 감추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태희야”라고 부르면서 밝혀지는데 이걸 보는 순간 궁금증이 다 해소되며 글이 마무리 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런 독특한 방법으로 처음에 날 이 책으로 끌어 들였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읽고 난 후 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선뜻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드문데 ‘과연 건널목아저씨 같은 사람이 있으려나?’하고 생각이 들었다.

한 가지 예로, 나도 길을 걷다가 한 학생이 고등학생들로 보이는 학생들한테 놀이터에서 돈을 뺏기는 걸 목격한 적이 있지만 그냥 지나쳤다. 이 글을 보고 그랬었던 내가 한심하고 부끄럽기만 했다. 또한 뉴스 같은데서 ‘주위에 무관심한 현대인’ 이런 게 나오면 비난하고 그랬다. 나부터가 주위에 무관심한데 남한테 그러길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내가 아니면 남이 나서서 돕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부터 버려야겠다.

내가 먼저 나서서 따뜻한 손을 먼저 내밀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야 했는데 부끄럽기만 하다. 다른 사람들을 홍보고 그런 처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책 내용 중에 태석과 태희는 엄마와 재회 후에도 건널목아저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건널목아저씨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한다. 또한 나도 남들한테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건널목아저씨가 건널목 역할을 하면서 그 길에 건널목이 진짜 생기고 태석이가 커서 건널목아저씨를 따라서 건널목 교통정리를 하고 있듯이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접목시켜보면 ‘내가 먼저 하자’ 이런 생각으로 나부터 선행을 하고 후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 건널목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또한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뿐만이 아니라 놀이터에서 위험에 처해있는 쌍둥이 형제를 도와준다. 도와주는 과정에서 학생한테 힘없이 당하기까지 했다. 일한 사연이 있었던 것은 건널목아저씨의 자식들이었던 쌍둥이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무단횡단, 쌍둥이 자식들의 교통사고의 트라우마였는지 쌍둥이 형제를 보고 싶어서 경비실로 자주오고 건널목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식을 잃고 자식에 대한 그리움 때문 이었는지 건널목아저씨의 따뜻한 마음도 엿볼 수 있었다. 자식에 대한 사랑도 볼 수 있었다. 건널목아저씨는 열심히 해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 경비실에 살림을 차릴 수 있던 것처럼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도 되어야겠다.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듯이 나도 주면 언젠가 남에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짧은 이야기였지만 나를 다시 이렇게 많은 점을 되돌아보게 하는, 전환

점이 되는 책이었다. 세상이 도시화되면서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삭막해진 상황에서 따뜻한 에너지를 뿜는 사람,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가 아닌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 이병 이동준(방패교육대 교육2중대)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책이 나에게 묻는다.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라고 되물으며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은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다. 주인공인 ‘나’ 태희는 동화 작가다. 수상작도 있는 과거엔 유망한 작가였지만 이 후엔 큰 성과가 없어 주위에서 항상 걱정과 훈계를 들으며 지낸다.

그러던 중 ‘나’는 결국 인생의 무료함을 끝내고 일을 하고자 결심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던 중 ‘이야기 듣기 교실’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삐그덕 거렸다.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를 정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광고부터 한 것이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나’는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독자에게 마음을 연 작가였던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려면 이야기를 하는 사람부터 마음을 열자! ‘나’는 마음속에 하고 싶었지만 못하고 마음 속 깊이 담아버린 그의 이야기가 있었나보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정한 후 광고를 냈다. 드디어 ‘이야기 듣기 교실’에 3명의 아이가 왔다. 종원, 소원, 나경, 종원이는 영어학원이 가기 싫어 오게 된 성격 급한 까칠한 아이 같았고 소원이는 종원이 동생인데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시선으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나경이는 꿈이 동화 작가여서 그런지 매사에 적극적인 아이로 그려졌다. 그렇게 이야기 속의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다.

제목 ‘그리운 건널목 씨’ 이 속의 주인공은 건널목 씨이다. 카펫에 그려진 건널목을 메고 다니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건널목이 되어 주는 괴짜이면서도 참으로 고마운 아저씨다.

이 아저씨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책을 보는 내내 탄성이 절로 나와 ‘한번 보고 싶다.’ 라고 느낄 정도이다. 건널목 씨는 결혼도 하고 쌍둥이 자식도 있었지만 쌍둥이를 낳던 도중 아내가 죽고 아이들도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지나다 교통사고로 잃게 된다. 얼마나 가슴 속에 안타까움이 많은 사람인가...그래서 이동식 건널목이 생겨났다. 더 이상 자기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건널목 씨는 바랬을 것이다. 건널목 씨가 아리랑 아파트 후문에서 무단횡단을 하려는 쌍둥이 형제를 위해 이동식 건널목이 되었다. 쌍둥이 형제가 자기 자식 같아서 일까? 그 후 계속 건널목이 되어 주었고 건널목 씨가 아리랑 아파트 주민의 입과 입에서 오르내리며 지내던 중 건널목 씨는 작은 쌍둥이형제들이 중학생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마음씨 착한 건널목 씨는 항상 웃고 다녀서 속도 없는 사람처럼 비춰졌다. 그래서 그런지 어른이 중학생들에게 엄청 맛있다.

그 일이 있고 건널목 씨의 착한 행동들을 외면 할 수 없었던 주민들은 비어있는 105동 경비실에서 건널목 씨가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곳이 건널목 씨의 집이 된 것이다. 아리랑 아파트 105동은 항상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단 한곳은 매일 부부싸움이 일어난다. 그 집의 딸인 도희는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계단에 있다. 그러다 건널목 씨와 알게 되고 착한 건널목 씨는 도희를 외면하지 못해 자기 집인 105동 경비실에 있게 한다. 도희는 매일 싸우는 부모님 때문에 친구하나 만들지 못하는 아이이다. 건널목 씨는 그런 도희에게 유일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준다. 건널목 씨가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 가는 도희가 태석이와 태희를 만나게 되는데 태석이와 태희는 남매이다.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그 전에

돈을 벌어오겠다고 집을 나가 둘이서 살고 있어 건널목 씨가 찾아와 항상 도와주고 있었더라. 아!! 앞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가 태희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이 건널목 씨 이야기는 주인공이 하지 못해 물어뵈던 이야기였던 것이다.

이 책을 집중해서 읽으면서 반전을 찾고자 했는데 이러한 진실이 숨어져 있었다니! 역시 책이란 알다가도 모르겠다. 왜 이렇게 긴장을 시키는 건지. 다시 줄거리로 넘어가자. 도희와 태석, 태희가 서로 점점 친해지면서 도희가 점점 밝아지게 되는데 그러던 중 도희의 부모님이 크게 다투어 도희네가 결국 시골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던 중 집을 나간 엄마가 태석이와 태희를 찾아오는 데 원망 가득한 태석이에 비해 감정이 없는 것처럼 무뎡뎡하게 엄마를 대하는 태희...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리워도 했겠지. 보고 싶었겠지. 정말이지 무심한 엄마가 아닌가. 그렇게 태희와 태석이는 엄마를 만났다.

그런데 건널목 씨가 어느새 부터 보이지 않는다. 아리랑 아 파트 후문엔 진짜 횡단보도가 생겨났다. 그 때문일까? 태석이와 태희가 더 이상 자기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일까? 한참을 연락하지 않았던 도희에게 태석이는 전화를 건다. 서럽게 울면서 건널목 씨를 찾는다. 도희도 함께 찾으며...이렇게 건널목 씨 이야기는 끝이 난다. 건널목 씨는 태석이와 태희에게 건널목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 정확하게 길을 만들어 주진 않지만 관심을 가져주면서 ‘괜찮아 이제 건너도 돼’라고 다독여 주는 그런 존재.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 닿을까. 내 주위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겠지? 그렇다면 삭막한 첩바퀴처럼 돌아만 가는 세상이 조금은 아름다워 꽃이라도 보일텐데...중간 중간 건널목 씨 이야기가 끊어지면서 종원, 소원, 나경이의 태도 변화도 재미있었다. 그저 까칠하기만 했던 종

월이가 얘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소월이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순수하게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귀엽던지...나경이는 학습적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지만 이 건널목 씨 이야기를 동화로 쓰겠다는 당돌함까지 보인다.

나는 나경이가 꼭 나의 어릴 적 모습 같아 왠지 흐뭇하다.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아이! 파이팅이다. 그리고 어머니, 새 언니 그리고 직접적인 등장은 없지만 오빠가 나오는데 ‘나’의 실제 이야기인 ‘그리운 건널목 씨’이야기에 나오는 엄마, 도희, 태석. 그렇다. 오빠인 태석과 결혼한 새언니인 도희. 지금은 같이 지내는 엄마. 태희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하지 못한 가슴 속 이야기. 엄마, 오빠, 새언니에게 사랑한다고 전하며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라고 되물으며 책의 내용은 끝이 난다.

나는 이제 ‘그’가 누구인지 알겠다. 본 적은 없지만 따뜻한 그 사람이 왠지 내 주위에 있는 것만 같다. 아니, 있다고 해야 맞는 것일까? 따뜻하고 용기 있는 그런 사람. 남들은 속이 없다고 깔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며 사랑을 베푸는 사람. 나도 마음속으로 되묻는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횡단보도가 아닌 건널목 같은 사람. 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건널목을 메고 다니며 이동식 건널목이 되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삭막한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느끼며 실 한 오라기 같은 빛이라도 따뜻함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라도 전하며 손 한번 잡아줍시다. 우선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겠지요? 항상 주위에 관심을 가지고 당장 우리 이웃에 누가 사는 지부터 한번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 ‘그리운 건널목 씨’ 이야기를 용기 있게 해준 태희에게 감사의 박수를.
소설 밖의 나의 이야기 끝!

■ 상병 이정호(방패교육대 교육3중대)

‘나의 결과물이 과연 상대방에게 의도한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가.’는 모든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풀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나 또한 미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과제나 간단한 전시회를 할 때, 나의 창작물이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진행되는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고민이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그 때 했었던 고민들이 내 머릿속에서 하나 둘 씩 되살아나고 있는 것을 느꼈다. 특히 책의 도입부에서 “나는 그동안 독자들에게 마음을 연 작가였던가, 내 가슴에 깊이 박힌 이야기는 뽕뽕 숨겨두고 머리로 쥐어짠 이야기를 내 놓으며 말로만 떠들지는 않았을까”라는 표현을 씬으로써 말하는 자신이 진실 되게 말해야 듣는 대상이 마음을 열게 된다는 주인공의 깨달음과 그 내용이 나에게 뭉클하게 다가왔다.

동화작가이지만 별다른 ‘수익과 성과 없이’ 지내오던 주인공 태희는 부모님과 새언니의 잔소리에 눈치가 보이다가 결국 듣기교실이라는 특이한 과외를 시작하게 된다. 이 과외는 ‘잘 듣는 아이가 말도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럴싸한 모토를 가지고 있다.

주인공은 과외를 준비하며 앞에서 언급한 주인공의 깨달음을 계기로 자신이 지금까지 표현하기 꺼려하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 놓는다. 작가는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 내면에 기억되고 있는 그 사람, 즉 건널목 씨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건널목 씨로 비유되는 남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 한번쯤 경험해 보았을 그러한 건널목 씨를 그리움의 대상으로 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작가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좀 더 안타깝고 동정심을 갖게 하는 사연의 주인공을 설정하게 된다. 지금껏 그 힘든 시기를 언급하기를 꺼려했지만, 그리움 속에 남아있는 건널목 씨를 그려내며 그리움과 작가로서의 고통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자동차 부품회사에 다녔던 건널목 씨는 쌍둥이 자식을 낳다 부인을 잃었고 건널목 차 사고라는 아이러니한 사건으로 남은 두 혈육마저 잃는다. 이 설정만으로도 잔인하지만 작가는 그를 끝까지 건널목 씨라 호칭하며 도움까지 받고 친분이 있던 이웃이지만 이웃 간 통성명의 기회조차 없는 삭막한 도시의 삶을 그려내었다.

나 또한 가슴에 깊숙이 새겨져 있는 아련한 기억이 있다. '90년대 말 한창 IMF이다 뭐다 하여 온 사회가 난리일 때 우리 집 또한 휘청거렸다. 이 기억은 지금까지도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면 추억이고 웃으며 넘길 일이지만 그 당시 8살이던 나에게는 큰 아픔이었고 상처였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나 학원에서 미술에 대해 큰 칭찬을 받던, 그래서 화가가 꿈이던 어린 '나'. 학교 미술 준비물로 물감을 사왔어야 했는데, 내가 사고 싶던 예쁜 색이 많던 전문가용 물감을 비쌌었다. 어린 마음에 고집으로 학교 앞에서 파는 일반 물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부모님의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울고불고 떼를 써도 결국 준비물을 준비 못한 채 학교에 갔다. 준비물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담임에게 매까지 맞게 되자 쉬는 시간 충격에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렸다. 서럽게, 그렇게 쉬는 시간이 끝나고 내 자리로 갔는데 내 책상위에 내가 말한 색의 물감 세 개가 놓여 있었다. 짝꿍이 전날 내가 그렇게 노래까지 부르며 준비해 올 거라며 했는데 안 해온 것이 이상해, 빌려준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쑥스럽고 별것 아닌 사건이었지만 당시 어린 '나'는 너무나도 위안을 받았고 그 이후로 그 짝꿍처럼 나도 좀 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격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이처럼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은 '행복바이러스'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책을 통해 어렸을 때의 '건널목 씨'와 같던 대상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게 했던 대목 또한 좋았지만, 앞부분의 창작하는 사람으로서의 고뇌와 깨달음을 더욱 감명 깊게 읽었고 느꼈다.

과연 나는 가슴에 깊이 박힌 경험들을 뒤로 한 채 머리roman 쥘어짜 내지는 않았는지, 감성을 자극하기보다 말로서 이성roman 로만 다가가려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 책이었다.

■ 상병 여영철(방패교육대 교육3중대)

은평구립도서관과 방패교육대의 협력아래 시작된 독후감 쓰기 경연 대회! 내가 입대해서 꼭 결심한 것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서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마침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한 권의 책을 더 읽게 되었고 나의 두 번째 결심엔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이 책의 첫 장을 펼치니 ‘이야기 듣기 교실’의 전단지가 나왔다. ‘이게 뭐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더 흥미가 생겼다. 육하는 성격의 이야기 들려주는 선생님 ‘오 작가’, 오작가의 성격 급한 제자 ‘종원’, 처음엔 오빠가 가니깐 따라왔지만 아이의 상상력을 잘 보여준 종원의 동생 ‘소원’, 침착한 성격을 가지고 오 작가에게 톡 쏘는 질문공세를 펼치는 동화작가 지망생 ‘나경’, 이 네 명의 멤버가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오 작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책을 읽을수록 내가 오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들고 집중하는 종원이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엔 집중해서 읽지 못했지만 건널목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가 무르익어 가고 수업이 끝났다는 오작가의 대사를 읽을 때마다 ‘도 대체 왜 여기서 수업이 끝나버려서 이야기가 끊어지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며 나도 모르게 빠르게 다음 페이지를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이 책을 읽어 내려가면 갈수록 오작가의 이야기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나는 조금 늦게 이해를 했다. 종원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겠다고 했을 때에도 나는 정작 알지 못했다.

순간 ‘내가 멍청한 건가? 아니면 이해력이 느린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더 책을 읽어 내려갈수록 ‘건널목 아저씨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이 책의 주인공들과 매치가 되면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주인공 한 명, 한 명을 찾아낼수록 이 책의 매력에 더욱더 빠져들었다.

책을 다 읽고 나니 ‘그 사람을 본적이 있나요?’라는 책은 내가 살아온 과거들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항상 건널목이 없는 도로를 건너는 아리랑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빨간색, 초록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노란색 안전모를 쓰고, 무거운 카펫 건널목을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이 건널 때 카펫 건널목을 펼치고 신호등이 되어 주고, 아리랑 아파트 주민들이 만들어준 아주 작은집인 105동의 경비실에서 생활하며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품을 모으고 사진해서 야간순찰을 돌며 봉사를 하고 복숭아 할머니와 주민들의 편안한 말벗이 되어주며 주민들이 서로서로 인사도 더 자연스럽게 하고 상냥하게 만들며 좋은 에너지를 뿜어 ‘아리랑 아파트’에 생기가 넘치도록 만들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간 태석이와 태희를 위해 고물을 팔며 번 돈으로 월세를 대신내고 먹을 것이 떨어졌는지 항상 확인해 채워주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라고 기름을 넣어주는 건널목 아저씨의 마음에서 우리러 나오는 따뜻한 행동들을 보면서 나는 살면서 한 번이라도 마음에서 우리러 나오는 친절이나 봉사를 베풀어 본 적이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때로는 힘들고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완벽한 사람이 자신을 번쩍 안아 원하는 곳으로 옮겨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비록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서로가 덜 힘들게, 덜 아프게, 덜 무섭게 그 시기를 건널 수 있도록 작은 건널목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끝마치려고 한다. 모두

가 살면서 한 번쯤은 주변의 힘든 사람에게 그 힘든 시기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작은 건널목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 상병 한준영(방패교육대 교육3중대)

‘그 사람을 본적이 있나요?’를 읽으면서 나는 우리 삶에 있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내가 ‘소통’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은 군인이라는 신분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군’이라는 조직 역시 우리 사회의 일부이며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각각의 개별적인 조직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유주의는 인간의 사고들을 개인주의적으로 바꾸어 버렸다. 스스로에 대한 몰입의 정도가 높아져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타인에 대한 연결고리는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한 소통의 부재는 사회 전범위적으로 각종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만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제시되기 어렵다.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도 공동체의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짧은 시간에 사회 깊숙이 파고든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SNS)’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구조가 더욱 긴밀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사용자들은 SNS 콘텐츠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 속에 존재하는 자신 외부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외부의 이야기’이며 사용자들에 의해 소비되는 정보에 불과하다. 사용자들은 외부의 정보들을 선택적 수용을 하고 있을 뿐이다. SNS의 구조적 특성은 앞서 말한 개인주의적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SNS 역시 우리의 사회구조 내부에서 형성된 서브컬처인 것이다 결국

SNS로 인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결합이 소통부재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작가의 창작동기가 범사회적 소통부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소설 속에서 제시된 방법은 지극히 개인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그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발전될 수 있다.

주인공 ‘오명랑 작가’는 ‘이야기 듣기 교실’을 통해 소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두 공동체의 목표가 ‘소통’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이야기 교실의 아이들에서 출발하여 가족들과의 소통을 달성하게 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 요소들은 순차적으로 공동체 내부에서 기능하여 내부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시스템’이 구축되고, 그 시스템에서 소비되는 ‘콘텐츠’가 생성되며, 그에 대한 결과물인 구성원간의 ‘공유감’이 형성된다. 소설에서는 ‘오명랑 작가의 가족’이라는 외부적 공동체가 존재하며 ‘이야기 교실’이라는 시스템이자 내부적 공동체가 존재한다. 오명랑 작가가 선택한 ‘자전적 동화’는 내부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아이들이 소비하는 콘텐츠로 기능한다. 아이들과 가족들은 이를 ‘공유’함으로써 두 공동체의 목표인 ‘구성원간의 소통’을 이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내부적 공동체의 소통이 외부적 공동체로 확대되어 간다는 것이다. 분명 개인적이고 특수성이 존재하는 방법이지만 콘텐츠의 내용이 소비될 만큼 양질의 것이라면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오명랑 작가가 구축한 시스템에 사회구조의 특성을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 보아야 한다. 아이들이 이야기 교실에 오는 이유는 개인적인 필요에 있다. 아이들은 시스템과

그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콘텐츠의 내용 역시 중요하다. 콘텐츠는 소통될 가치가 있는 생산자의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 오명랑 작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감동적이며, 가족에게 소통될 만한 소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오명랑 작가의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콘텐츠가 구성원들에게 '체험'될 수 있어야 한다. 가족들에게는 직접 체험한 스스로의 이야기이며,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배경으로 하여 간접적인 체험을 제공한다. 이런 체험은 진심을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 스스로가 소통에의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의지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 잘 살아가려면 소통이 필요하다. 비록 지금의 우리는 자신에게 매몰되기 쉬운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타인 그리고 외부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행동화한다면 우리 삶은 더 풍요로워 질 것이다.

■ 상병 최범선(방패교육대 교육3중대)

가장 먼저 이렇게 병사들에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쓸 기회를 주신 방패교육대 간부님들과 은평구 구립도서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김려령의 ‘그 사람을 본 적 있나요?’는 책 속 화자의 옛 추억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동화작가인 화자는 아이들에게 이야기 형식으로 자신의 옛 추억을 다른 인물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화자는 등장인물 중 건널목 아저씨라는 인물에게 도움을 받고 인생에 있어 많은 영향을 받은 모양입니다. 책속의 주인공인 화자는 불행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어린 시절 건널목 아저씨는 화자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건네준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책속에서 화자가 은연중 아이들에게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고, 가족과 건널목 아저씨와 관련된 인물들 앞에서 이야기를 꺼냈는지 모릅니다.

작가는 건널목 아저씨라는 인물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문명의 삭막함 속에서 그런 따뜻한 사람이야 말로 말라가는 사람들의 인심을 조금이나마 바꿔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려고 하나 봅니다.

현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감성은 메말라 있는 듯 합니다. 청소년들은 입시전쟁과 성인들은 자신의 생활...그렇게 이익에만 매달려 자신의 주위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기억에 남는 방법은 재력과 명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 속의 건널목 아저씨와 같이 주위의 이

웃들만 돌아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삭막한 현실 속에 누군가에게, 꼭 봉사나 지원만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전우가 있다면, 혹은 친구, 가족이 있다면, 비록 자신조차 힘든 상황일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손길을 건네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 속 화자의 유년기 시절처럼...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 추억이 어떤 사람과 함께 했는지를...이 책을 읽은 사람들도 어떤 누군가의 추억 속의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그 사람을 본 적 있나요?’의 그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혹은 추억 속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이만 이 책을 읽은 나의 후기를 마무리 지어 봅니다.

■ 일병 한성훈(방패교육대 교육3중대)

얼마 전 부대에서 ‘그 사람을 본 적 있나요?’라는 책을 읽고 난 후 독후감을 쓰고 제출하면 잘 쓴 사람을 뽑아 포상휴가와 상품권을 준다고 했다. 포상 휴가란 걸 받아 본 적도 없고, 전입은 후 집에서 가지고 왔던 얼음과 불의 노래라는 책을 다 읽어서 그 다음 읽을 책을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잼싸게 책을 받은 후에 바로 읽기 시작했다.

맨 처음 나는 책의 표지를 보았다. 그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라는 제목과 안전모를 쓴 얼굴 없는 남자 그리고 김려령 작가와 장편소설. 한 번도 이 작가의 책을 읽어 본 적이 없었던 터라 표지만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 그 후 목차를 보았다. 이야기 듣기 교실에서부터 너무 늦은 말까지, 목차를 보고 난 후에 나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밝은 내용의 소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 읽고 나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주인공인 오명랑 작가는 7년 전 동화작가로 등단하고 한번 입상한 후 그 후론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방안에만 박혀 매일 이야기 줄거리만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때문에 새언니에게 일이라도 하면서 글을 쓰라는 말을 듣게 되고 이에 오명랑 작가는 이 상황에 처한 자신에게 회의감이 들게 된다.

그 후 오명랑 작가는 이야기듣기교실이란 것을 하기로 마음 먹게 되고 동네 이곳저곳 전단지를 붙이게 된다. 그러다가 문득 그 동안 자신이 독자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나? 하고 깨닫게 된다. 이 상황에 처한 주

인공을 보고 내가 고등학생 때 펀드매니저가 되겠다고 모의투자 대회에 참가하여 괜찮은 성적으로 입상하여 그 후 자신감에 가득한 채 막무가내로 실전투자를 하다 1년 동안 별 성과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게 되자 이에 부모님이 그 시간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나 했으면 훨씬 좋은 경험을 했을거라고 꾸짖으셨을 때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았다.

이야기로 돌아와 오명랑 작가는 이야기듣기교실을 통해 세 명의 귀여운 제자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루하루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이야기가 관련 실화인지 아닌지 맞추어보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듣기 교실은 시작이 되었다.

첫 날 이야기 속에서 언젠가부터 한 아파트 앞에서 매일 아침마다 카펫횡단보도를 까는 아저씨가 등장한다. 이 아저씨는 하루도 거스르지 않고 나타나고 사람들은 건널목아저씨라 부르기 시작한다. 이 아저씨의 선행이 매일 같이 반복되자 점점 아파트 주민들이 감사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에 사는 쌍둥이 형제가 불량학생들에게 구타당하던 것을 건널목아저씨가 구해 주게 되고 이에 아파트 주민들이 그 동안의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아파트에서 쓰지 않는 경비실을 거처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아파트 경비역할을 부탁하게 된다. 그렇게 건널목아저씨는 경비실에서 살게 되고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건널목아저씨가 왜 선행을 베풀고 다니는지, 왜 쌍둥이 형제에게 남다른 애착을 가지는지 등 비밀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건널목아저씨가 문을 닫고 순찰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경비실 문이 열린 것을 알게 된다.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도희라는 아이가 숨어 있었다. 도희는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해 건널목아저씨가 오기 전부터 이곳에 자주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건널목아저씨와 도희는 자주 만나

게 되고 건널목 아저씨는 도희를 부모님으로부터 숨겨준다. 건널목 아저씨와 도희는 친해지게 되고 건널목 아저씨는 도희가 친구가 없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평소 자신이 돌보아 주던 태희, 태석이를 소개시켜주기로 한다. 태희, 태석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 건널목아저씨가 돌보아주고 있었던 아이들이다. 처음에 태희는 도희를 좋아하지만 태석이는 쉽사리 다가가지 못한다. 하지만 결국 가족과도 같이 친해지게 되고 그들 남매에게 있어 도희는 든든한 누나, 언니이자, 엄마가 된다. 하지만 도희의 부모님의 부부싸움으로 인해 어머니가 크게 다치게 되고 도희는 시골로 이사 가게 된다. 그렇게 태희, 태석, 건널목 아저씨끼리 지내다 어느 날 집 나갔던 어머니가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머니가 돌아와도 그 동안의 거리감 때문에 쉽사리 다가가지 못한다.

어머니는 그 동안 자식들을 돌보아 준 건널목 아저씨께 보답하려 하지만 이미 아저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이렇게 동화는 끝나게 된다. 이야기를 하는 중간 중간에 이야기 듣기교실이 끝나고 오명랑 작가는 어머니, 그리고 새언니와 대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오명랑 작가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 놓은 것에 있어 과거 상처들 때문에 망설임과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결국 오명랑 작가는 이 상처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곳곳이 이야기해 마무리를 짓게 된다. 그리고 어머니 또한 자신의 이야기 부분을 용기 내어 받아들이고 자신이 직접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면서 그동안 묵혀 왔던 감정들 못다한 말들을 서로 털어 놓고 좋은 방향 쪽으로 결말이 나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의 줄거리는 진짜 김려령 작가가 겪었던 이야기이고 실제로 김려령 작가에게 건널목 아저씨 같

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건널목 아저씨의 대가 없는 선행은 어디서 우러나오는 것일까?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애뜻함이 아닐까? 과연 이야기 속 건널목 아저씨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지금부터라도 건널목아저씨처럼 대가없는 선행을 베풀 줄 알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고맙고 소중했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군대에서부터 실천해야겠다.

짧지만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 책.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은평구립도서관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이병 박요한(방패교육대 교육3중대)

군대에서 독후감을 쓰게 될 줄 몰랐는데 포상이 걸려 있다 보니 저절로 관심이 가게 되어서 읽게 된 ‘그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고 읽었지만 다 읽고 책을 덮고 나서 깊은 여운이 남았고 마음속에 느껴진 것들이 많았다.

우선 가장 와 닿았던 건널목 씨. 가족을 일찍 잃은 아픔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떠돌아다니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는 모습은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계산된 친절이 아닌 진정으로 남을 배려하여 그 사람을 ‘행복’이라는 감정에 도달하게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건널목 씨가 더욱 대단하게 느껴진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좋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좋은 에너지를 내뿜는다는 것이었다. 항상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도 보상을 바라고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남을 돕고 배려하는 자세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에게도 건널목 씨 같은 존재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나에게도 초등학생 때부터 꼭 함께해온 동네 친구들이 건널목 씨 같다. 항상 나를 응원해주는 든든한 친구들이 오늘 따라 더욱 보고 싶다.

두 번째로 와 닿았던 건 어린 시절 부모가 없었던 태희와 태석이었다. 부모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태희와 태석에게는 아무리 잘 보살펴주는 건널목씨보다 존재 자체만으로 든든한 부모가 더 필요 했을 테니까. 어린 시절, 집이 무서워도 엄마아빠가 초인종을 누르면 무서움이 달아났다는 내용이 정말 공감이 갔다. 나에게 부모

님이 있다는 게 당연하게 여겨 왔는데 책을 읽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얼마 전 다녀온 신병위로 외박 때 부모님과 제대로 된 시간 한번 갖지 않고 부대에 복귀해 부모님께서 무척 서운해 하신 것이 마음에 걸린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죄송하고 후회가 된다. 오늘 전화로라도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느낀 건 오명량(태희)에 대한 부러움이다. 자신이 가진 직업인 작가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척 부러웠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건 행복한 것이며 또한 이루기 쉽지 않은 것 같다. 아직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나에게 오명량 작가는 나에게 긴 숙제를 남긴 것 같다. 앞으로 남은 군 기간 동안 내 미래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봐야겠다. 오랜만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책을 읽게 되어 뿌듯하고 이렇게 독후감까지 쓰게 되어 내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다.

■ 이병 전상현(방패교육대 교육3중대)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책의 주인공의 직업은 작가입니다. 젊은 나이에 등단을 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무명으로 지내온 그런 작가입니다. 무명작가의 무위도식을 더 이상 참지 못한 가족들의 은근한 압박에 주인공은 자신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이야기 듣기 교실을 차리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줄 첫 이야기로 거만했던 이전의 모습에서 탈피하고자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인 ‘건널목 아저씨’를 선택하게 됩니다. 처음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은 그저 이동식 건물목을 가지고 다니는 특이한 아저씨라고 생각하지만 주인공에게는 괴롭기도 했던 어린 시절에 기억하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주인공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건널목 아저씨’는 이야기 듣기 교실을 열게 만든 새언니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집을 떠난 상황에서 건물목아저씨는 주인공과 주인공의 오빠를 지켜주는 건물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뒤에 어머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그리고 도희마저 부모님의 싸움 때문에 시골로 내려가게 되자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소리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20여년이 흐른 뒤에도 주인공의 기억 속에 이야기로 들려줄 만큼 선명하게 남아있는 건물목아저씨는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도 매너리즘에 빠진 주인공을 다시 한 번 작가로서의 꿈을 지켜나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건물목 아저씨만큼 헌신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누군가에게 만큼은 힘든 시기를 이겨 낼 수 있게 해

주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남에게 도움이나 되는 사람이 될 수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책을 통해서 마음가짐만큼은 제대로 가져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 상병 손창훈(방패교육대 본부중대)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오 명랑작가, 그리고 오명랑 작가의 어머니, 오 명랑작가가 이야기 듣기 교실을 통해 들려주는 동화 속 소녀이자 오 명랑의 새언니 도희, 새언니 도희의 남편이자 오 명랑작가의 오빠 태석, 이야기 듣기 교실의 학생들 종원, 소원, 나경. 그리고 동화의 주인공 건널목 씨. 그중에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진 주인공은 이 책의 많은 독자들도 그렇겠지만 건널목 씨이다. 자신의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도와주는 사람. 사실 나에게도 건널목 씨 같은 은인이 있다.

내가 아주 어릴 적 나의 외갓집은 돈이 엄청 많았는데, 천주교 집안인 외갓집의 외삼촌 네 명이 성당에서 만난 분이 있었다. 어느 날 그분이 안 좋은 일이 생겨 살아가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는데, 외삼촌 네 명은 조건 없이 그 분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고 한다. 그 일로 인해 그 분과 외갓집은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고, 자연스레 막내였던 나의 어머니와도 언니 동생으로 지냈었는데, 무슨 일인지 그 분과 연락이 끊겨 수년 동안 잊고 지냈었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20살이 되어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어머니는 그분과 다시 연락이 되었다고 나에게 자랑을 했었다. 우리는 그분을 이모라고 불렀고 어머니와 이모는 매일 저녁 전화를 하면서 수다를 떨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뒤 우리 집에 비상이 걸렸다. 나의 아버지는 작은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고, 사장인 아버지는 의심 없이 작은아버지에게 회사의 모든 돈 관리를 맡겼었는데, 작은 아버지가 돈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회사 이름으로 사채를 쓰고 사라졌다. 아버지

는 나와 누나에게 빨간딱지를 보여주기 싫다며 매일 술을 마시며 힘들어하셨고, 그걸 본 어머니가 고민을 하다 이모에게 그때의 사정을 말했는데, 그 이모가 노발대발하며 어머니에게 “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뭐가 필요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야!”라고 했다고 한다. 그렇게 비상이 걸리고 한 달 정도 뒤 우리 집은 예전보다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고, 어머니는 우체국에서, 아버지는 다른 회사를 차려 일을 시작했지만, 엄청나게 큰일 날 것 같던 내 예상보다 너무 조용하게 일이 지나갔고, 그 일이 있기 전과 다름없이 지낼 수 있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이모는 엄청난 마당발에다가 동대문에서 알아주는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어머니에게 우리 집의 사정을 듣자마자 이모는 우리를 도와주겠다며 발 벗고 나서서, 집을 사주고 어머니에게 일자리를 주고 아버지에게도 다시 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남의 일 같이 얘기를 했지만 나도 그 당시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고, 가족들과 함께 잠 못 이루며 슬퍼했었다.

책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의 다른 점이 있다면 난 나의 건널목 씨 같은 이모와 아직까지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는 것? 우리 가족과 이모는 늘 연락하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모가 건널목 씨 같은, 나에게 도움을 준 은인이 찾고 싶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라면 오명랑 작가처럼 많이 그리워하고 안타까울 것 같다. 하지만 나의 은인은 계속해서 나의 가족을 지켜봐 주고 있다. 여러모로 난 오명랑 작가보다 복 받은 것 같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과거일지도 모르지만 이 책이 건널목 씨 같은 고마운 사람이 나의 주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우리

가족 말고는 아무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이 독후감으로 털어본다. 생각해보면 그저 부끄럽기 보다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건널목 씨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에게 또 다른 건널목 씨가 생길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의 건널목 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미 난 그 이모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도움이 몸과 마음이 힘든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난 느껴보았기에, 더욱 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 상병 유태규(방패교육대 본부중대)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무슨 내용의 책 이길래 이렇게 얇은가 했었습니다. 책을 넘기고 첫 장부터 이 책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포스터 그림이 그 뒤에 내용을 너무나 궁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책장을 한 장, 두 장, 넘기며 보았을 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책의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 속의 주인공이 아이들을 상대로 이야기 듣기 교실이란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책의 흥미를 더 자극시켜 주었습니다.

책 속의 주인공이 자기가 겪어 왔던 일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 듣기 교실이란 교실을 만들면서, 이야기 속에 주인공인 건널목 씨가 선행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며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책은 단순히 건널목 씨를 주인공으로 이야기 한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새언니(도희), 어머니, 태희와 건널목 씨의 선행과 아픈 과거가 들어나기 시작했고, 이 이야기는 책에 나오는 세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보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태희와 어머니, 새언니의 숨은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다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반부터는 이 책이 단순히 책속의 태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임을 인지하고 읽기 시작했더니 책의 내용이 어머니와 태희, 새언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등이 생기고 어떤 아픈 과거가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주인공이 세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세 사람의 아픈 과거와 건널목 씨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났던 책이었다. 결국 이 책을 다 읽게 되었다. 처음에는 얇은 책인데 어떤 내용이 크게 담겨 있을지 생각을 했었지만, 하지만 책을

다 읽은 후 얇다고 해서 함축적인 의미와 이 책의 전하고 싶은 내용은 두께는 상관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랜만에 본 책이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오랫동안 책을 보게 해줬던 고마운 책인 것 같다.

처음에 독후감쓰기대회라고 하여서 흥미는 가졌지만 책의 처음 첫 장을 넘기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다. 독후감 쓰기라는 이유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지만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길때는 내가 이 책을 읽기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지 않더라도 시간이 날 때 마다 책을 읽고 독후감으로 읽은 책들의 내용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오래간만에 내용이 재미있고 집중해서 본 책인 것 같아 나름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 상병 김승훈(방패교육대 본부중대)

“좋다”, “싫다”이란 말에는 명백한 기준이 없습니다. 똑같은 것이 누구에게는 좋을 수도 있으나, 어떤 이에게는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이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좋은 글이라고 평가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저에게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가슴을 따뜻하게 하지만 뜨겁지는 않게, 무겁지 않은 글이지만 가볍지는 않게. 짧은 글이지만 여운마저 짧지는 않게, 어둡지 않은 글이지만 마냥 밝지도 않게.

나에게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는 좋은 글이자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이 글은 오명량이라는 필명을 가진 작가가 이야기 듣기 과외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가족이 그토록 이야기를 조심히 하는 이유가 나오는 실마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내에 있는 인물들도 대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한사람, 건널목 아저씨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를 더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변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지켜주었고, 후에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베푸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말처럼 그는 주변 이들에게 사랑을 주었고, 그 역시 다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과거와 현실을 계속해서 넘나듭니다. 이야기 형식

으로 말입니다. 이야기 중간 중간마다 쉬는 시간(?)이 주어지며 그 사이마다 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아이들과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아이들이 이야기 중간 중간에 순수한 관점으로 질문을 던지는 구조를 취하여 독자로 하여금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곤 합니다.

건널목 아저씨라는 인물은 글쓰이가 되고 싶은 인물일 것입니다. 글쓰이는 것처럼 남을 위해 희생하며 도와주고 보살펴 주고 안식처가 되어 주고 싶어 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자상하고 자신의 손익을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삼촌에게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저도 그리 긴 인생을 살진 못했지만 여태까지 살았던 짧고 짧은 시간을 돌아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힘든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일 수도, 아니면 직장이 어려운 것일 수도 건강이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어깨를 두드리며 해주는 위로와 도움, 배려...그 말과 행동의 값어치는 비단 다른 말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친구, 가족 등의 진심어린 위로는 위기라는 도로위에 작은 건널목인 것입니다. 건널목이 하나가 모든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없듯이 위로와 도움이 모든 사건을 해결해 줄 순 없습니다.

허나 건널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크듯 그 효과가 작지만은 않을 것이며 그 사건보다 사람의 마음을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널목 아저씨란 작가가 되고 싶어 하지만 현실에 부딪혀 아직까지 해본 적 없는....., 또한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보자..... 라는 작은 깨달음을 주고하자 이러한 글을 썼을 겁니다.

저 또한 위 글쓴이와 같은 생각과 꿈을 가지게 됐으며, 나 자신을 한 번도 돌이켜보면서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 상병 김영문(방패교육대 본부중대)

병영도서관 사서와 교육대 책을 관리하는 병사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책에 대한 많은 관심은 없었다. 어렸을 때에는 어머니의 권유로 책을 읽었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휴대전화 컴퓨터에 더욱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 같다. 하지만 군대에 들어와 사서라는 직책을 맡고부터는 조금씩 책을 읽기 시작했다. 베스트셀러에 올라온 ‘아프니까 청춘이다’, ‘완득이’ 등 책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독후감 대회를 한다고 해서 ‘아! 이번에 독후감을 써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갔다.

김려령 작가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완득이’에서 먼저 만나 봤다. ‘완득이’라는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그것을 본 나로서는 책을 읽는 내내 재미있다고 느끼고 빠른 속도로 읽어내려 갔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에 독후감 책으로 선정된 ‘그 사람을 본 적 있나요?’를 기대하고 책을 기다렸다.

하지만 책을 손에 쥔 순간 실망했다는 게 사실이다. 책도 너무 얇고 펴보니 글씨도 커서 어린이용 책 인줄만 알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들고 주인공 오명랑 작가에 감정이입이 되기 시작했다. 이야기 구성도 좋았다. 이야기 속에 이야기... 액자식 구성...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야기 구성을 보니 색다르고 반가웠다.

처음에 작가로 나오는 오작가는 직업은 작가이지만 무명작가라 거의 백수 생활을 하다시피한 작가였지만 어머니에게 떠밀리듯 시작한 ‘이야기 듣는 교실’을 통해 자기의 옛 이야기를 하면 자기 치유를 한다고 느꼈다. 솔직히 자기의 옛이야기를 처음 보는 그것도 어린아이들에게 고전동화 말하듯 이야기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냥 좋은 이야기 하는 것도 힘든 일 이겠지만 결코 좋지 않은 기억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나로서 는 힘들 것 같다.

이야기 속에 이야기 주인공인 건널목 씨는 착한 바보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요즘 세상은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돈! 돈! 돈!’을 외치는 세상인데 무보수로 동네의 안전을 책임져주니 말이다. TV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프로그램에서나 나올 사연으로 동네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준다니... 이것이 바로 바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다보니깐 건널목 아저씨도 그런 일이 없었고 가족들과 오순도순 지내면 어떻게 지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과연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동식 건널목을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의 안전을 책임지는 걸 말이다.

책을 덮고 난 뒤에는 한동안 아무생각도 들지 않고 책표지에 그려져 있는 건널목 아저씨를 봤다. 처음에는 시시해 보이던 책도 다 읽고 나니 책 한권이 뭔가 심오해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이 책을 사회에 찌든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요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한 발자국 뒤로 가서 배려해 주는 마음, 비록 건널목 씨처럼 그렇게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배우게 만들어 주는 책인 것 같다.

제목 ‘그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원래 책이란 제목에 함축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책을 다 읽고 ‘그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답은 바로 나온다. 건널목씨인 것이다. 하지만 길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생

각해 보면 우리의 안전을 위해 남몰래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 상병 안태한(방패교육대 본부중대)

오명랑 작가에게 건널목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는 특별한 공간으로 다가오듯, 나에게도 추억을 되살리는 나만의 건널목이 있다. 남들에게는 그저 운동을 위한 장소일 뿐인 체육관이, 나에게서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의 건널목이다.

어렸을 적 체육관을 지나가다 가슴을 때리는 기합 소리를 듣게 된 나는 어린 호기심에 체육관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문틈 사이로 비치는 선수들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는 모습에 나는 가슴이 설레었다. 곧장 나는 감독 선생님께 무작정 달려서 저 선수들 사이에 끼고 싶다고 하였다. 감독선생님께서서는 키가 작았지만 당당했던 나를 흔쾌히 받아 주셨다. 그 이후로 나는 운동을 시작하였고 힘들지만 즐거운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다.

내 어린 적 기억을 되살려준 고마운 책, <그 사람을 본적이 있나요?>. 처음에 책장을 펼칠 때만 하더라도, 나는 그저 독후감을 쓰기 위한 목적으로 이 책을 읽으려 하였다. 하지만 하나둘 책장을 넘기다보니 어렸을 적 추억이 되살아났고, 잠시 책을 덮어 두고 잊고 있던 나의 어린 적 추억에 빠져들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반대할 지라도, 글을 쓰는데서 즐거움을 얻고 스스로에게 당당한 오명랑 작가의 모습에서 어렸을 적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 역시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주위사람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나는 운동을 너무도 간절히 하고 싶었고, 운동에 대한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계속된 설득으로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하였고, 나중에는 나의 가족들도 내가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은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 돌이켜봐도, 그 때만큼 순수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운동을 하는 것이 마냥 즐거웠고, 그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행복과 기쁨,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었다.

오작가가 글을 쓰는 데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도 내가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아무렴 어때? 나는 글 쓰는 것이 좋은 작가인 걸!”이라는 당당한 자세를 가진 오작가의 모습에 나는 반했다. 나의 체육관이 오작가의 건널목이었고, 오작가의 건널목은 나의 체육관이었다. 건널목을 건너는 아이의 모습이 오작가의 추억을 되살아나듯, 체육관 내부에 들어서면 아련하게 풍겨오는 특유의 냄새가 나의 옛 기억들을 자극한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희미해져버린 내 어릴 적 기억들이 나를 설레게 한다.

도희와 태석이, 태희를 지켜주던 건널목 씨와 같은 사람이 나에게도 있다. 나를 설레게 하던 체육관, 그 곳을 항상 지키던 나의 감독선생님 희망, 용기, 자신감, 배려를 아낌없이 가르쳐 주셨던 분이였다. 키가 작은 나에게 감독선생님은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해주시며 키가 작아도 누구보다 잘해낼 수 있다라는 희망과 용기를 안겨 주셨다.

건널목 씨가 태석이와 태희의 삶의 희망을 안겨준 것처럼 나에게도 감독선생님은 운동이라는 삶의 희망을 안겨주셨다. 그 희망 덕분에 나는 운동을 하는 내내 힘들지만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었다. 그 고마움 덕분에 나도 누군가의 건널목이 되어주고 싶다. 태석이가 건널목 씨처럼 다른 아이들의 건널목이 되어주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건널목이 되어주고 싶다. 이 책을 통해 잊고 있었던 과거의 좋은 추억

들을 되살려 볼 수 있어 행복했다.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늘 가슴속에 있던 그 추억들이 새록새록 피어났다. 그리고 나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하게 되었다.

늘 상 지나다니던 건널목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걸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그냥 지나쳐왔던 소소한 것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봐야겠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감독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건널목 씨에게도 잊고 지냈던 좋은 추억들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게 해주서 고맙다.

■ 일병 안동우(방패교육대 본부중대)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이야기를 진짜 ‘이야기’하듯이 전개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이야기 인줄 알았는데 그게 조금씩 오명랑 작가의 가족사에 관한 것임이 밝혀져 가면서 머릿속으로 인물 관계도를 상상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이 책에서 특히 감명 깊었던 부분은 태석, 태희 남매가 엄마와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오명랑 작가는 그동안 속에 꼭꼭 쌓아왔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들려줌으로써 속에 쌓아왔던 것들을 속 시원히 풀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건널목아저씨는 떠나신 게 아니라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쪽 곁에 있으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십 수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건널목 아저씨’라는 이야기로 어머니와 오명랑 작가 사이에 건널목 카펫을 깔아서 진심이 통할 수 있게 마음의 건널목을 깔아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살아계실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습니다. 인물구도를 알고서 다시 읽게 되면 다른 책을 읽는 듯한 신선함이 느껴질 것 같기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일병 김지훈(방패교육대 본부중대)

나는 항상 책을 고르거나 책을 읽으려 할 때 제목과 저자를 살핀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겠지만, 나는 무엇보다 제목에 이끌리는 편이다. 솔직히 이 책은 제목만 보면 딱 드는 생각은... ‘음... 누구를 찾기 위해 지은 책인가?’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 작은 생각, 호기심을 갖고 책을 읽어 나가야 나중에 길이 기억에 남는다고 보는 독자 중 한명이다.

이 소설의 내용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었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지만 실제로는 접하기란 많이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었다. 소설은 처음부터 많은 걸 꺼내 보이지 않았다. 뒤로 갈수록 이야기 전개가 더 흥미로웠다. 내가 이야기 듣기 교실에 있었다라든가 종원이 녀석 같았을 것 같다.

나는 진부하게 줄거리를 적는 독후감이 싫다. 그 줄거리는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다. ‘나무보다는 큰 숲을 보라’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이 소설의 내용, 주인공들을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생각해 보았다. 글 내용을 보면, 부부싸움을 견디다 못해 나온 도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생계를 위해 떠나버렸던 태희, 태석, 위험한 길을 돌이켜 다니는 쌍둥이 형제, 그런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보다 더 신경써주는 건널목 씨, 다 큰 태희가 세 명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생생한, 너무 생생한 과거를 묵묵히... 듣고 있는 태희의 어머니...

이 등장인물들만 보면 우리 사회의 안타까움 들을 많이 알 수 있다. 건널목 씨는 아마 그 사회를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보고 있는 몇몇 사람을 대변해주는 사람일 것이다. 그 위험한 도로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조그만 건널목하나

제때 설치 안 해주는 곳들... 꼭 무슨 일이 일어나야 그 뒤에 대처하는 모습들... 심각한 부부싸움에서 벗어난 아이를 신경도 잘 안 쓰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제대로 보수 및 지원이 안 되는 상황... 등등 이 사회는 정말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이 글을, 아니 이 글의 마무리를 자칫하면 해피엔딩을 오해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오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말하는 오해는 이런 것이다.

“아! 결국 이제 태희가 이야기 듣기 교실에서 마음 편히 아이들에게 과거를 말함으로써 어머니와의 벽(어릴 때 생긴 것)을 허물고 건널목 씨, 그 은혜를 생각하며 좋은 이야깃거리로 남아 잘 지내겠구나...” 물론!! 이런 생각이 틀린 게 아니다. 저자가 생각한 건 오히려 이 오해가 맞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이 글의 마지막 문장에서이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묻고 싶은 말... 그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물론 나의 답은 ‘거의 본 적이 없다.’ 이다.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기란 너무 힘들고 존재한다 하여도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다양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느낀다면 많이 힘들어 할 것이다. 지금까지 쓴 나의 소감을 보면 너무 비판적인 것 같아서 보는 사람 입장에선 약간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의도로 쓴 게 아닌 거라면 저자에게 죄송하다. 하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 보는 관점, 생각하는 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자유이다. 그리고 내가 앞서 내가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고 한 건, 태희가 과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동화라고 말해주며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머니께 못 다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책을 통해 많은 걸 느꼈다. 그리고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나는 꿈이 교사이다. 내가 교사가 돼서 나의 제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꼭 물어볼 것이다. “너네는 그런 사람 본 적 있니?”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되돌아올 것이다. “선생님은요?” 그 때의 나의 대답은 “당연하지!” 일 것이다.

■ 일병 문찬헌(방패교육대 본부중대)

이 소설은 동화작가 오명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쓴 소설이다.

줄거리는 이렇다. 오명랑 작가는 7년 전 동화작가로 등단을 했다. 하지만 자기 책을 읽은 독자를 찾기는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보다 힘들었다. 그만큼 오명랑 작가의 책이 유명하지 않았다. 직업은 작가지만 유명한 작가가 아니라 수입도 불안정하고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었다. 일 년 수입이 빵원인 적도 있었다. 그래서 오명랑 작가는 이야기 듣기 교실이라는 과외를 시작하게 된다. 말 그대로 이야기 듣기 교실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과외였다. 그녀는 광고지를 아파트 각 동 입구에 붙이며 회원들을 모집을 하였다.

드디어 세 명의 아이들을 만났다. 아이들의 이름은 종원이, 소원이, 나경이다. 종원과 소원은 남매고, 나경이는 종원과 같은 학교 5학년이다. 이렇게 오명랑 작가는 아이들 세 명을 데리고 수업을 시작하게 된다. 제목은 그리운 건널목 씨. 그 내용은 이렇다. 건널목 씨는 안전모를 쓰고 다니는 아저씨이다. 앞뒤는 빨간색 옆에는 초록색 동그라미가 그려 있는 모자이다. 모자도 모자지만 기둥처럼 돌돌 만 카펫까지 들고 다닌다. 황당하고 우습지만 건널목 아저씨는 신호등이 없고 건널목이 없는 장소에 나타나 교통 지도를 해주시는 좋은 분이였다. 신호등은 안전모를 이용하고 신호를 나타냈고, 건널목은 카펫을 이용하였다. 매일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 아침마다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경비아저씨, 복숭아 할머니와 친해지기 시작하였다. 복숭아할머니는 건널목 씨가 대견하다 생각하던 어느 날, 복숭아 하나를 건네게 된다. 그

복숭아가 정말 맛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인지 그 복숭아는 정말 달고 시원했다고 한다. 교통지도를 꾸준히 한 건널목 씨는 옆 아파트 주민들에게 착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다.

그가 고물상에 한쪽을 빌려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회의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건널목 씨는 105동 앞 비어있는 경비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경비실에서 살게 되면서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도 친해지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게 된다. 이 글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다.

이렇게 오명량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말하며 과외를 듣는 세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자신뿐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까지도 건널목 아저씨의 행실을 말하며, 아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게 된다.

■ 이병 정경석(방패교육대 본부중대)

첫 장을 넘겼을 땐 ‘아, 그냥 뭐 아이들이 보는 수준의 책이겠구나’ 싶어 가볍게 읽어야지 하고 속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 만에 마지막장을 넘기고서는 너무도 아쉬워서 맨 마지막 쪽에 있는 작가의 말과 경력까지 꼼꼼히 뒤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입대 전에 아주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 ‘완득이’의 원작 소설인 ‘완득이’의 작가였던 것입니다! 그걸 알고 나니 이 책에 더욱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

책의 주인공은 무명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 ‘태희’입니다. 그녀는 주변으로부터의 뜨끈한 편지에 대한 방편으로 ‘이야기 듣기 교실’을 열게 됩니다. 수강생은 3명, 종원, 소원 남매 그리고 나경이입니다. 첫 수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태희는 아이들에게 머리로 쥐어짠 얘기가 아닌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녀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건널목 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목, ‘그리운 건널목 씨’. 어느 날 조용하고 평범했던 아리랑아파트에 우스꽝스러운 차림을 한 아저씨가 나타납니다. 그는 건널목이 그려진 카펫을 깔아 건널목을 만들고 신호등이 그려진 공사장 안전모를 쓴 채 아리랑 아파트 후문에서 사람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시작합니다. 건널목 아저씨에겐 아내와 쌍둥이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내는 쌍둥이를 낳던 도중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무단횡단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나란히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해서 건널목을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의 보행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선행에 처음엔 의아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아파트 주민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아저씨의 착한 마음과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아파트 주민들은 아저씨에게 새 보금자리를 내어주고 폐품도 모아주게 됩니다. 105동 앞의 경비실에서 지내게 된 건널목 씨는 우연히 도희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고 도희는 아저씨를 통해 태석이와 태희를 만나게 됩니다. 태석이와 태희는 아저씨가 돌봐주고 있던 사정이 딱한 아이들이었는데, 도희와 남매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게 됩니다.

얼마안가 집안사정으로 도희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집을 나갔던 남매의 엄마가 찾아옵니다. 건널목 씨는 그 후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이야기 속의 남매 중 동생인 태희는 이야기를 하는 태희 자신입니다. 겨우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듣기 교실일 뿐이지만 태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는 아픈 기억을 아이들을 통해 밖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종의 배설을 통해 독자에게 마음을 연 작가가 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어릴 적에 겪은 아프고 아련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을 마음속 한구석에 천천히, 조용히 앙금이 되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어떠한 연관도, 비슷한 의미도 갖지 못하는 일들에 의해 가라앉아있던 그것들이 수면 위로 기척 없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날의 날씨, 공기, 냄새 같은 것들이 떠올라 마음이 지긋이 아프곤 합니다. 저 역시 글속의 남매와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소설 속 태희의 모습에 흐뭇해 할 수 있었고, 언젠가 그녀처럼 그 앙금들을 건져 올려 멀리 떠내려 보낼 날이 저에게도 올 것 같은 두근거림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건널목 아저씨처럼 계산적인, 과시하는 친절이 아닌 당연하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저에겐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생각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저씨는 일종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아저씨처럼 묵묵히 모두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책을 읽으며 태희에게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아저씨에게서 묵묵한 사랑과 배려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을 아저씨를 떠올려 봅니다.

p.s. 앞으로도 독후감경연대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책 읽게 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충성!

은평구립도서관

군장병 독후감상문쓰기대회 독후감상문 모음집

》 발행인 : 엄무성

》 편집인 : 김숙경

》 발행처 : 은평구립도서관

》 발행일 : 2012년 12월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8 가길 13-84

☎ (02) 385 - 1671 ~ 4

간지

간지

겉표지(내측)

겉표지(외측)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은평구립도서관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8 가길 13-84
전화 (02) 385-1671~4
홈페이지 www.eplib.or.kr